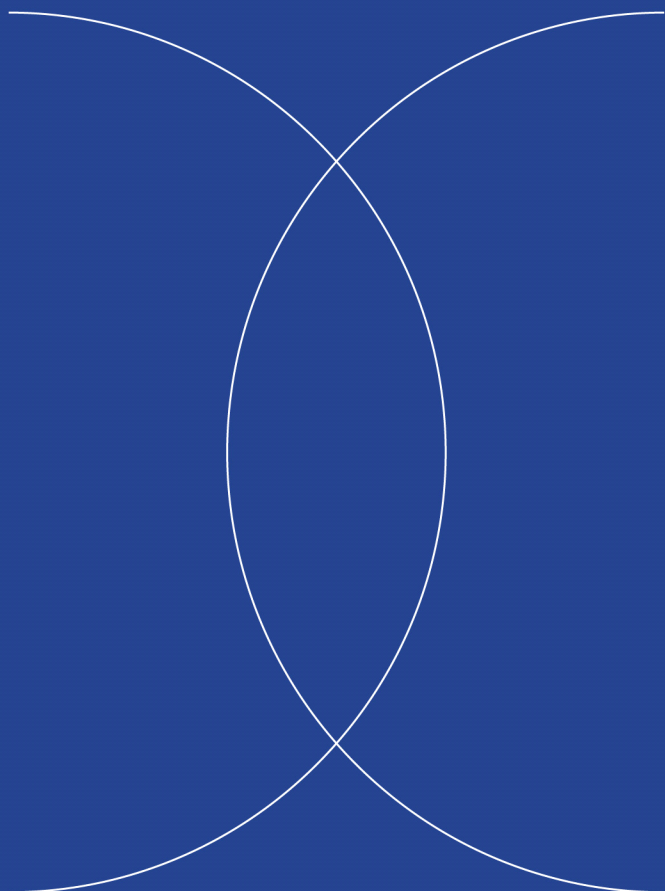


장애예술 연구 지원사업
성과분석 결과자료집

결과 너머, 연구자의 이야기



목 차

1. 개요

장애예술 연구 지원	4
우수 연구를 선정하기까지	10

2. 연구자의 이야기

이헌재 앤 컴퍼니 장애의 시선에서 벗어난 발달장애인 배우 참여형 연극 형태 연구	14
✂ 리뷰: 양근애	

공영선 쓰는 무용, 말하는 무용, 듣는 무용	22
✂ 리뷰: 문영민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정신장애인이 체험한 ‘공간’을 연극화하는 창작 방법론 탐구: 당사자 주도적 창작 워크숍 개발	30
✂ 리뷰: 최보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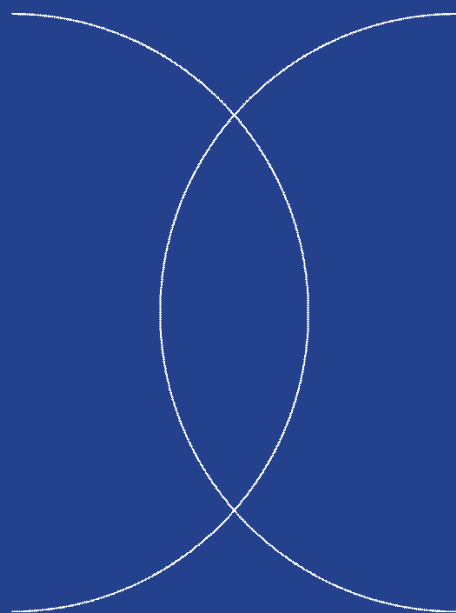
3. 전문가의 이야기

다양하게 펼치고, 널리 퍼지게	40
------------------	----

4. 부록

장애예술 연구 지원 운영 결과 2023-2025	46
----------------------------	----

1. 개요



장애예술 연구 지원

한눈에 보기

사업 목적

- 장애예술 연구·비평 활동, 장애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등을 통한 장애예술계의 이슈 생성과 장애예술의 창·제작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내에서는 창·제작 기반 유형에 속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예술인, 장애예술단체, 비장애예술인, 비장애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창작자, 기획자뿐만 아니라 실연자, 연구자, 비평가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장애예술 연구에 필요한 일부 경비를 지원하며, 개인은 정액 8백만 원, 단체에게는 정액 1천 5백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년(1년) 지원사업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1억 2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

- 크게 ‘장애예술계의 이슈, 담론형성을 위한 국내·외 리서치, 비평 활동 및 연구(모임) 지원’과 ‘장애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및 관련 연구 결과 공론화를 위한 행사 지원’ 2개 유형으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필수 이행사항 및 유의사항

- 대중을 대상으로 공개 온·오프라인 ‘결과발표’를 1회 이상 개최하고, 공유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형태의 공개 방식을 정하고 계획을 수립해 결과물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분량 : 30페이지(A4 기준) 내외, 사업 종료 1개월 이내
- 연구·비평 결과 공론화를 위한 공신력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연구·비평 주체(참여자 소속 등)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연구 과정 중 연구부정행위와 연구 결과물과 관련된 저작권, 초상권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공모 기준으로 2027년 공모 내용은 2027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예술 연구 지원

유형		예산	사업 내용	지원 규모
창·제작 기반	장애예술 연구 지원	120백만 원	·장애예술계의 이슈, 담론형성을 위한 국내·외 리서치, 비평 활동 및 연구(모임) 지원 ·장애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원 및 관련 연구 결과 공론화를 위한 행사 지원	개인 8백만 원 단체 15백만 원

*202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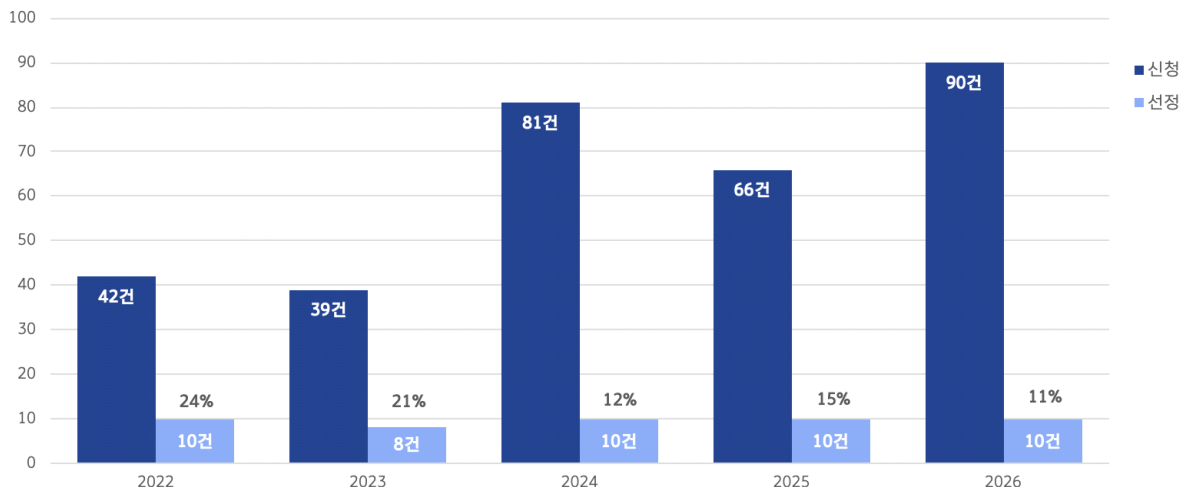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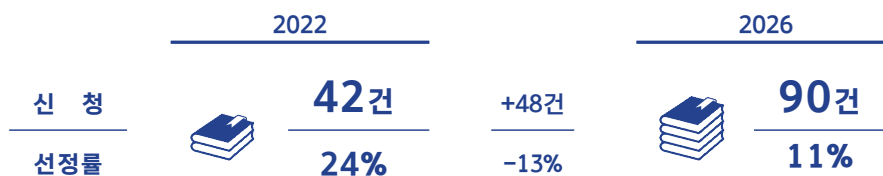
돌아보기(2022-2026)

- ‘장애예술 연구 지원’사업은 2022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규모가 확대되고 창작기반, 창작활동, 향유활동, 지역 4개 유형으로 개편되면서 창작기반 유형 내에 신설되었습니다.
-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내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유형을 옮겨 오고, 장애예술 이슈 및 담론 형성을 위한 연구 유형을 추가해 ‘장애예술 연구 지원’으로 재편성했으며, 2023년부터 비평 활동도 지원 내용에 추가했습니다.
- 2022년 시작 이후 2026년까지 전체 공모 예산 규모(120백만 원)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이는 전체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예산(2026년 기준 6,923백만 원)의 1.7%에 해당합니다.
- 지난 5년간 매년 약 10건을 선정해서 지원해 왔으며 지원 신청은 2022년 42건에서 2026년 9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선정률은 24%에서 2026년 11%로 낮아졌습니다.

장애예술 연구 지원 선정 결과(2022-2026)

*단위: 건, %

2022			2023			2024			2025			2026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신청	선정	비율
42	10	24	39	8	21	81	10	12	66	10	15	90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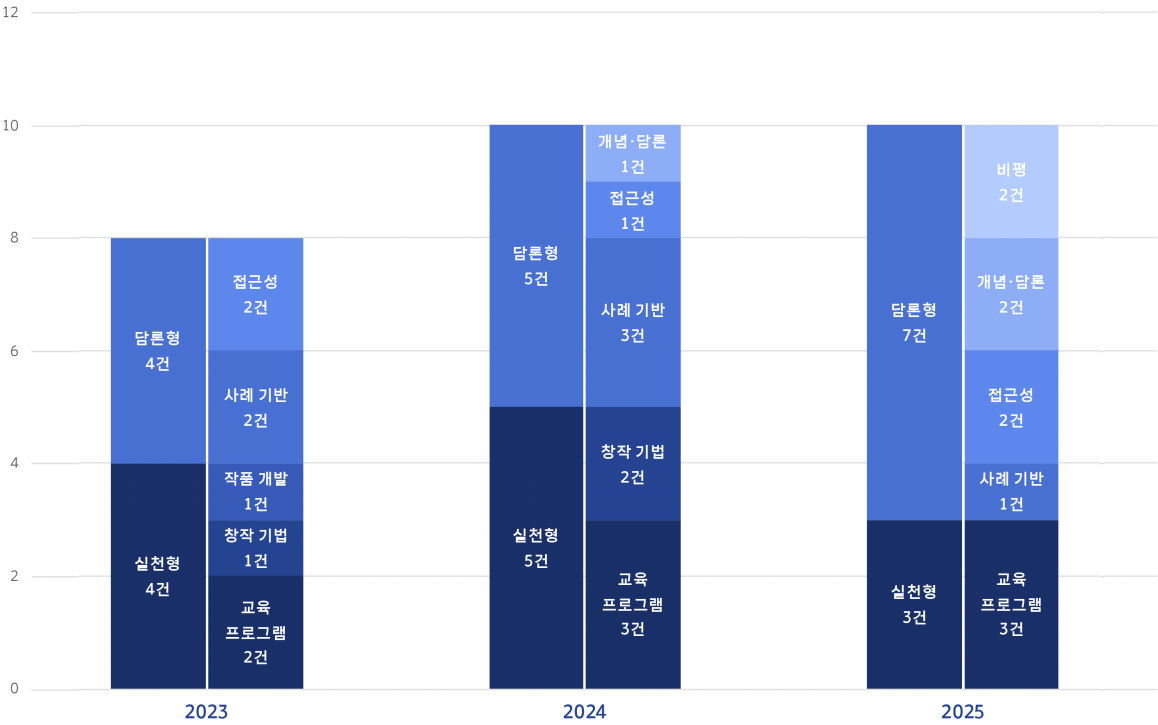
숫자로 보기(2023-2025)

범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장애예술 연구 지원 결과 총 28건

*연구유형은 선정자(단체)가 사업 종료 후 제출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임의 분류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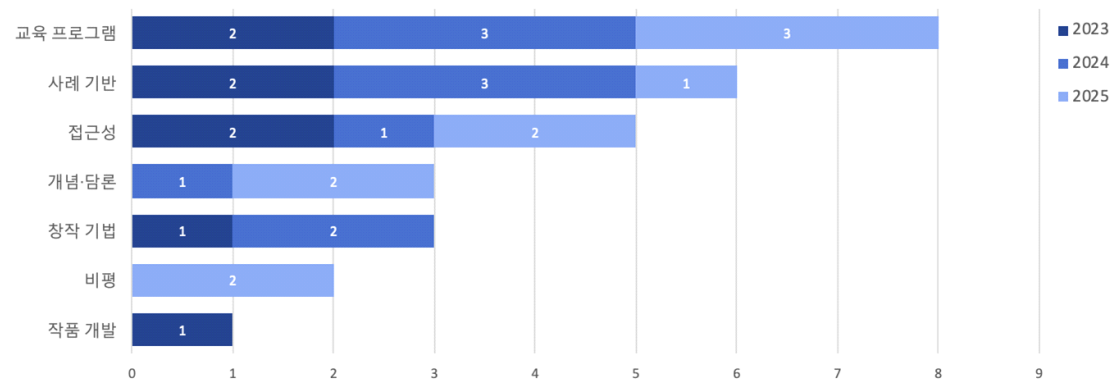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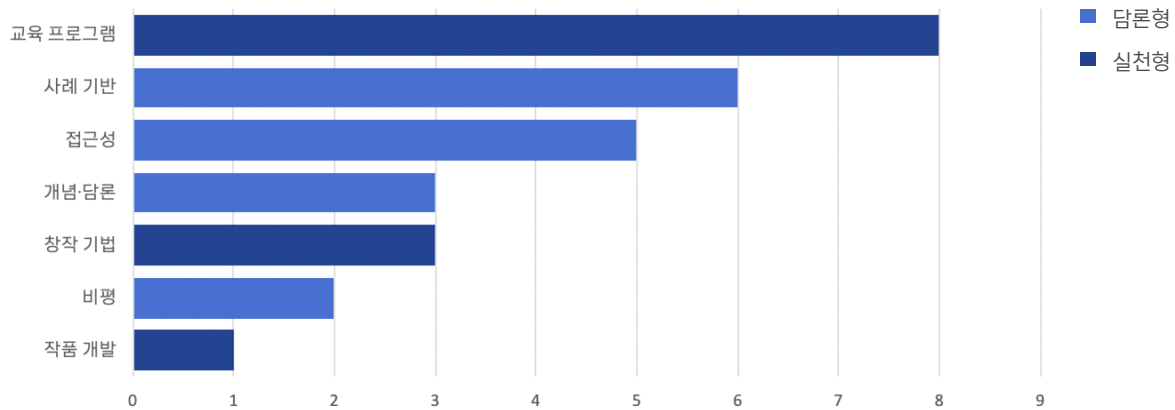
연도별

분류	실천형				담론형				
	교육 프로그램	창작 기법	작품 개발	합계	사례 기반	접근성	개념·담론	비평	합계
2023	2건	1건	1건	4건	2건	2건	-	-	4건
2024	3건	2건	-	5건	3건	1건	1건	-	5건
2025	3건	-	-	3건	1건	2건	2건	2건	7건
합계	8건	3건	1건	12건	6건	5건	3건	2건	1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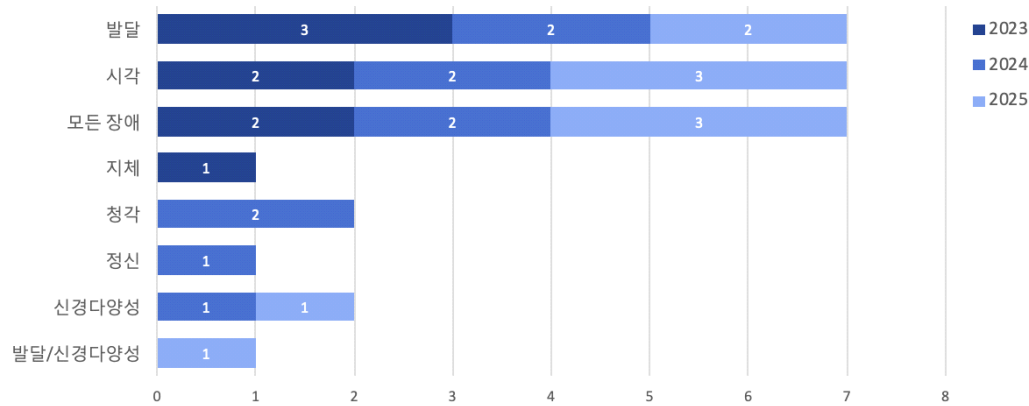
연구유형별

분류	2023	2024	2025	전체
교육 프로그램	2건	3건	3건	8건
사례 기반	2건	3건	1건	6건
접근성	2건	1건	2건	5건
개념·담론	-	1건	2건	3건
창작 기법	1건	2건	-	3건
비평	-	-	2건	2건
작품 개발	1건	-	-	1건
합계	8건	10건	10건	2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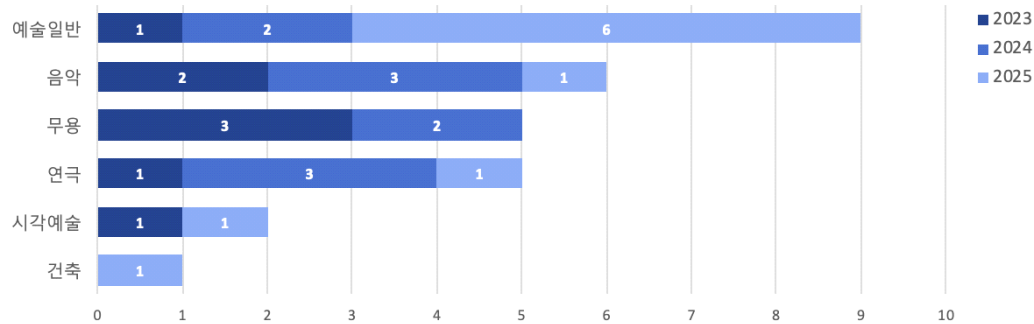
장애유형별

분류	2023	2024	2025	합계
발달	3건	2건	2건	7건
시각	2건	2건	3건	7건
모든 장애	2건	2건	3건	7건
지체	1건	-	-	1건
청각	-	2건	-	2건
정신	-	1건	-	1건
신경다양성	-	1건	1건	2건
발달/신경다양성	-	-	1건	1건
합계	8건	10건	10건	28건



예술장르별

분류	2023	2024	2025	합계
예술일반	1건	2건	6건	9건
음악	2건	3건	1건	6건
무용	3건	2건	-	5건
연극	1건	3건	1건	5건
시각예술	1건	-	1건	2건
건축	-	-	1건	1건
합계	8건	10건	10건	28건



자세히 보기

종합

연구유형 대분류 전체 28건 중에서 담론형 연구는 57%(16건)을 차지하며 실천형 연구는 43%(12건)로 담론형 연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담론형과 실천형의 비율이 5:5로 동일했으나, **2025년부터 담론형 연구와 실천형 연구의 비율이 7:3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유형 소분류 창작 현장 적용과 프로그램 개발 중심의 실천형 연구는 12건이 진행되었으며 이중 **교육 프로그램이 8건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합니다.** 교육 프로그램, 접근성 연구는 매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작품 개발은 2023년 이후에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비평 연구는 2025년에 처음 선정되었습니다. **창작 기법, 사례 기반형 연구는 감소하고 개념·담론, 비평 연구 분야가 조금씩 증가하며 다양화되는 추세입니다.**

장애유형별 발달장애 대상 연구(7건), 시각장애 대상 연구(7건), 모든 장애 대상 연구(7건)가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며 균형 있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각장애(2건), 신경다양성(2건), 지체장애(1건), 정신장애(1건) 등은 소수의 연구만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장애, 발달장애, 시각장애 관련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신경다양성처럼 세분화된 장애 유형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술장르별 '예술일반' 장르가 총 9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60%)을 차지하며, 접근성 등 장애예술 정책·제도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개별 장르는 음악(6건), 무용(5건), 연극(5건) 순으로 공연예술 분야 연구가 활발하며, 시각예술(2건), 건축(1건)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2023년에는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예술 분야가 많았으나 **2025년 예술일반 분야 연구가 증가한 것에서 장애예술 연구 흐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확산

이번 3년간의 연구 결과물 검토를 통해 **연구 지원사업만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창작, 학술 연구, 관련 행사 등을 통해 연구 결과가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수 연구로 선정된 미친존재감 프로젝트는 2025년 창·제작 지원에 선정되어 <매드 어사일럼 : 폐쇄병동에 대항하는 공간> 공연을 올리는 등 연구를 바탕으로 '미친'시리즈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2023년 (사)몸짓과소리의 연구는 '특수학급 대상 음악교육 프로그램 개정 지도안'으로 정식 발간되었으며, 2024년 전미라의 연구는 「장애무용수 움직임 표현 확장을 위한 접촉즉흥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실행연구」 논문으로 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2024년 Dominant Agency의 '기술을 활용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악 교육 연구'는 그해 서울대학교 인공지능 디지털 인문학센터가 개최한 '2024 인공지능인문학 1차 포럼: 모두를 위한 음악-융합적 접근'에서 발표되었으며 2025년 염상훈의 연구는 '오픈하우스서울 2025'와 연계해 '건축, 감각을 열다 -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오픈하우스'프로그램으로 경동교회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우수 연구를 선정하기까지

정리 비사이드컬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은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내에서 진행 중인 ‘장애예술 연구 지원’사업(이하 연구 지원)의 학계와 현장에서의 가치를 조명하고 외부로 확산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8건의 연구 결과물을 후보로 놓고 전문가 자문위원 3명이 각자 검토한 후에 의견을 나누고 우수 연구 3편을 최종 선정했다.

“2022년부터 별도의 트랙으로 연구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다른 창작 지원 분야는 모니터링이나 평가를 하면서 지원 내용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지만 연구 지원은 그렇지 못했다. 지원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심의해서 선정한 이후 결과보고서를 받는 것으로 끝났는데, 그간 어떤 성과가 있는지 결과물을 검토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전문가 자문위원

문영민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양근애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부교수

최보연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조교수

진행 과정

1차 회의	서면 검토	2차 회의	3차 회의	원고 청탁	아카이빙·확산
· 검토 항목 및 기준 논의 · 선정 방법 확정 (7월 2일)	· 연구 결과물 심사 (4주)	· 우수 연구 3건 선정 (8월 5일)	· 전문가 대담 · 사업 개선안 논의 (8월 24일)	· 연구자: 요약, 서면 인터뷰 · 전문가: 매칭 리뷰 (4주)	· 우수 연구 시상 및 공유회 · 결과자료집 배포 (10월 16일)

검토 기준

항목	내용
목적 부합성 20%	연구 지원사업의 목적(장애예술계의 이슈 생성, 기반 마련 등)에 부합하는지 연구 결과와 내용이 연구보고서상 제시한 연구 목적과 부합하는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는지
수행의 충실성 및 우수성 50%	장애 당사자의 참여,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연구 방법이 목적에 적합하게 설계·수행 되었는지 연구 내용 및 구성이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 장애예술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 형성이나 관점의 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는지 연구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윤리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장·심화 가능성 30%	연구 결과가 장애예술 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도출되었는지 연구 결과를 심화하여 후속 연구 주제 및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가 장애예술계에 실질적인 파급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1차 회의

일시 2026.07.02. 목. 오전 10:00~12:00

장소 이음센터 3층 회의실

1차 회의는 전문가 자문위원과 연구 결과 검토 항목과 배점 기준을 확정하고 선정 방법, 후속 행사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장문원에서는 연구 결과물을 기준으로 교육 프로그램, 사례 기반, 접근성, 창작 기법, 개념·담론, 비평, 작품 개발, 총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28건의 연구 목록을 공유했다.

양근애 위원은 “상대평가로 등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다음 연구 지원에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상(想)을 보여주면 좋겠다”면서 크게 사례 분석, 비평, 접근성, 담론 분석 등을 다룬 **담론형**, 교육 프로그램과 작품 개발, 창작 기법 등을 다룬 **실천형**, 두 개의 기준으로 나눠서 볼 것을 제안했다. 최보연 위원은 담론형과 실천형의 경계에 있는 결합형도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담론형 연구는 현재 연구하는 분도 많지 않고 관련해서 지원을 받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장문원에서 지원하는 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영민 위원은 검토 항목으로 당사자가 연구 과정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참여했는지 여부가 꼭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수 연구 검토 기준

연구 검토 항목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유사한 내용을 통합해서 크게 3개 항목으로 최종 구성했다.

연구 목적 부합성은 연구의 독창성, 차별성을 바탕으로 장문원에서 제시한 장애예술의 이슈 생성 등에 영향을 주었는지와 개별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목적을 일관성 있게 구현했는지, 두 가지 층위에서 보기로 했다. 연구 수행의 충실성 측면에서는 장애 당사자의 참여 방식 확인과 함께 당사자의 목소리를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반영했는지에 특별히 가중치를 두고 살피기로 했다. 여기에 연구 과정과 내용에 논리와 설득력이 있는지,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장애 예술 분야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지 등을 검토하면서 실천형은 현장 적용 가능성, 담론형은 연구 주제의 확장 심화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고 위원들이 유연하게 판단하기로 했다. 연구 결과 공개와 연계해서 연구의 투명성과 윤리성 부분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우수 연구 시상을 하기까지

검토 항목이 확정된 후 양근애 위원은 동기 부여를 위해 제대로 시상을 하자는 제안을 했다. 최보연 위원도 이에 동의하며 “이 행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면 좋겠다. 장애예술 전담 기관에서 사업을 주관한 이후 기관장 이름으로 상을 준다는 건, 기관에서 연구 분야에 신경 쓰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현장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에서라도 인정하는 방식이 조금 더 공적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최초 설계한 연구 목적에 맞게 진행이 되었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보고서 외에 지원신청서의 내용도 참고하기로 했으며, 연구의 확장성과 지원 성과 확산 측면에서 연구 지원 이후 학술논문으로 발표했거나 실천형의 경우 실제 공연이나 전시를 올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한 사례도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다.

2차 회의

일시 2026.08.05. 수. 오전 10:00~12:00

장소 모두미술공간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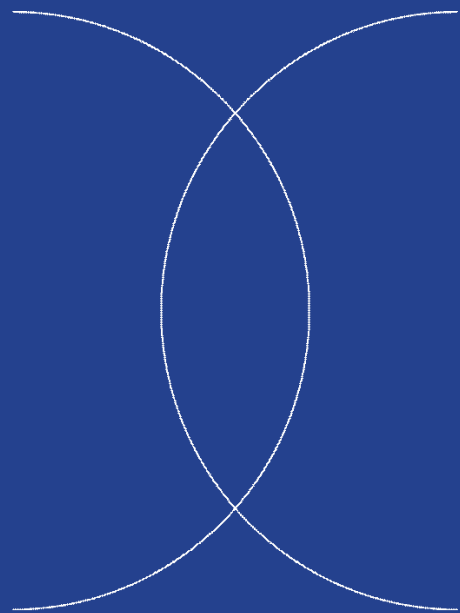
1차 회의를 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3명의 위원은 28건의 연구 결과물을 모두 검토한 후 다시 모였다. 위원들의 건의에 의해 이사장상 시상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1차 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3명의 위원들은 당사자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았으며, **연구 내용의 밀도가 높고 완성도 있는 결과를 만들어 공유한 연구, 좋은 아이디어를 잘 실현한 연구, 연구자의 지속성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후속 창작으로 확장성을 보인 연구**로 수상 후보를 좁혀 나갔다. 아쉽게도 방법론 없이 사례만 나열한 경우, 참신하지만 비평 언어에 구체성이 없는 연구, 연속 지원을 받았음에도 동어 반복이거나 심화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예술 현장의 적용이나 성과 발표가 아쉬운 연구는 후보에서 제외했다.

회의 과정에서 양근애 위원은 “지금 한 해에 10건 내외를 지원하니 결과공유회를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연구자들이 모여서 다른 팀과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는 팁도 공유할 수 있다. 2025년 AI가 처음 들어온 것처럼 연구 분야에서 주목한 이슈를 발견하고 다음 해에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힌트를 얻어갈 수 있다”며 **매년 연구 결과발표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우수 연구 3개는 이번에 공개되지만 그냥 묻어 놓기 아까운 연구가 많으니 연구 결과 확산을 위해 현재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결과보고서는 연구자(팀)의 동의를 거쳐 **이음온라인과 같은 공식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공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기본적인 검토 항목 외에도 담론형과 실천형, 장애 유형, 개인과 단체, 시의성 등의 기준까지 교차로 검토하며 **3개의 연구(이현재 앤 컴퍼니, 공영선, 미친존재감 프로젝트)를 우수 연구로 최종 결정했다**. 연속 지원을 받은 이현재 앤 컴퍼니는 2023년 연구를 시상하기로 했으며, 선정된 연구와 1:1로 매칭해 3명의 전문가는 리뷰 원고를 작성하기로 했다. 연구 지원에 대한 개선안과 전반적인 의견은 3차 대담을 통해 종합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2. 연구자의 이야기



이헌재 앤 컴퍼니

2023

장애의 시선에서 벗어난 발달장애인 배우 참여형 연극 형태 연구



이헌재 / 이헌재 앤 컴퍼니 작가

hearnzjhe@naver.com

인스타그램 @hearnzjhe_ann

유튜브 채널 www.youtube.com/hearnzjhe_ann

2022 발달장애인 배우를 위한 신체 훈련 프로그램

2023 장애의 시선에서 벗어난 발달장애인 배우 참여형 연극 형태 연구

2024 발달장애인 배우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에 관한 연구

2. 연구자의 이야기

연구 요약

“철학의 개념은 예술 없이 현실에 도달하지 못하고 예술이라는 현실은 철학 없이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한다.”

이 문장은 제 작업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서양 철학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며 마주친 개념들을 듣고 볼 수 있는 실제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 신체적 연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왔습니다. 신체적 연극은 단순히 신체를 활용하거나 대사가 없는 연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극을 구성하는 구조를 한계까지 바꾸면서도 그것이 여전히 연극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서 서사를 이어 가는 가장 중요한 신체인 ‘배우’라는 개념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기획을 맡고 있는 공동 연구자 윤태현 선생님은 연극심리상담사로 당시 발달장애인 분을 만나고 있었고 저도 예전에 발달장애인 분들과 같이 워크숍을 해본 적이 있어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구는 크게 문헌조사와 자문, 인터뷰, 발달장애인 배우 캐스팅과 오디션, 워크숍, 그리고 최종 연구 결과물 제작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작업에서 문제는 언제나 기존 연극의 틀에 무언가를 맞추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결국 이미 정해진 연극의 기준 안에서만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연 연극이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장르일까요? 무엇이 연극이 연극으로 보이게 만드는 걸까요? 연극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발달장애인분들과 함께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발달장애인 배우를 기존 연극의 구조에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기존의 연극 구조 자체를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배우들과 지속적으로 작업해 온 영국의 극단 하이징스(Hijinx)를 인터뷰하고, 국내에서는 노동장애분야의 연극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실제 현장에서 배우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어떤 어려움과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배우를 모집하고 오디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사회성 같은 항목을 생각했지만, 그것 역시 비장애인의 관점에서 배우를 규정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의 정도보다 무대 위에 오르고 싶다는 의지**를 중요한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오디션 역시 단순히 당락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각 배우의 개별적인 특성과 표현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설계했습니다. **일반적인 배우 포트폴리오 대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잘하는 것, 배우가 되고 싶은 이유 등을 묻는 별도의 자기소개 양식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발달장애인 배우들과 여러 차례의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정해진 대본이나 역할을 배우가 익히는 것보다 구성원 간의 호흡을 찾고, 각 배우가 가진 고유의 움직임과 반응을 관찰하면서 다양한 구조와 표현 방식을 실험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오디션을 포함해 여섯 차례의 과정이 진행되었고 마지막에는 이러한 실험을 토대로 연구 결과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결국 ‘배우’라는 개념만을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려면 배우와 함께 연극을 구성하는 희곡, 무대, 관객, 이미지와 텍스트 같은 다른 요소 역시 함께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점차 연극 전체를 이루는 구조를 기호와 개념의 문제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배우, 희곡, 관객, 무대와 같은 요소들을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보지 않고 기호로 환원한 뒤 다시 확장한다면, 우리가 연극이라고 인식해 온 구조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인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라는 구분 자체를 먼저 지우고 배우라는 기호를 다시 확장해 보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작한 연구 결과물 <구조, 기호, 연극>은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영상으로 압축한 작업입니다. 연극의 여러 요소를 기호로 환원하고, 결국 그 기호만을 남겨 ‘이것이 여전히 연극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발달장애인 배우가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특별한 구분으로 남지 않는 새로운 연극의 구조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연극이라고 인식했던 지점들을 바꾸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은 결국 영상으로밖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실제 무대 위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사용한 기호들을 무대장치나 오브제, 움직임과 같은 실제적인 요소로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달장애인 배우 각 개인의 특성과 표현 방식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하나의 연극으로 성립할 수 있는 서사를 만드는 일입니다. 정해진 대사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연습을 통해 반드시 정해진 대사를 하지 않아도 전체 서사가 이어지는, 보다 즉흥에 가까우면서도 여전히 하나의 서사가 되는 지점을 찾는 작업입니다.

이 연구는 하나의 완성된 대답이라기보다, 또 다른 대안을 상상하기 위해 시작한 첫 번째 작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확인한 중요한 가능성은 분명했습니다.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과 연극을 바라보는 시선은 모두 이미 만들어진 구조 안에서 작동하고 있으며, 그 구조는 결국 우리의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배우나 무대, 서사와 같은 연극의 한 요소만이라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 수 있다면 연극 전체의 구조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배우를 기존의 연극 안에 포함시키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작업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극 자체를 다시 질문하고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가능성을 실제 무대 위에서 하나의 새로운 연극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달장애인 배우만을 위한 별도의 연극이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기존의 기준을 넘어 누구나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연극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진정한 배리어 프리 연극은 더 이상 ‘배리어 프리’라는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연극일지도 모릅니다. 기존의 연극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꾸면서도 여전히 연극으로 남아 있고, 동시에 새로운 놀이와 경험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발달장애인 배우와 비장애인 배우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동등하게 그 안에 존재할 수 있는 것. 저는 이 연구에서 발견한 가능성을 앞으로 그런 새로운 연극의 형태로 계속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서면 인터뷰 //////////////////////////////////

Q. 활동하는 단체(개인)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서양 철학의 개념들을 여러 장르로 작업하고 있는 이현재라고 합니다. ‘신체적 연극’이라는 장르를 만들어 다양한 형태의 연극을 만들었고, 영화, 음악도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엔 주로 책을 쓰고 있습니다.

Q. 우수 연구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소감을 듣고 싶어요.

몇 년이 지난 연구를 다시 살펴보고 좋은 평가를 해주셨다는 점이 가장 기뻐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까지밖에 가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 자체를 의미 있게 봐주셨다는 점에서 감사했습니다.

2. 연구자의 이야기

Q. 연구 지원사업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진정한 의미의 배리어 프리 연극이란 무엇일까’하는 고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지원사업은 그 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했다고 봤습니다.

Q. 연구 과정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이나 발견이 있었다면 얘기해 주세요

언제나 의미 있는 순간은 발달장애인 배우 한 명의 서사와 만날 때입니다. 완벽하게 구성된 대사가 아니라 각 개인의 발화 형식에 맞춰서 전체가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때마다 가장 가능성도 보고 또한 가장 어려운 지점도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그들의 몸은 언제나 놀라운 지점을 해내기도 합니다. 저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들, 더 직관적이지만 오히려 익숙한 연기 방식으로 만들어내기 어려운 움직임과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장애의 특성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배우가 가진 고유한 표현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Q. 연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하려고 하는 작업의 룰 모델이 없다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답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도 없었습니다. 결국 배우들을 직접 만나고 실패와 수정을 반복하면서 하나씩 방법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Q.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 분야, 이어서 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신가요.

지금은 소설을 오페라 형식으로 만들고 음반까지 제작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오페라’라고 이름 붙였는데 무대 위를 위한 대본과 음악이면서 동시에 읽으면서 들을 수 있는, 특히 청자가 스스로 음악의 순서를 구성할 수 있는 음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극, 음악. 이런 고정된 장르의 구조를 바꾸는 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사업의 목표는 사실상 진짜 공연이었고 가능하면 꼭 만들려고 합니다. 음악도 분명히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장문원과 지원사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e나라도움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행정 절차가 조금 더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공연 제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몇 년에 걸쳐 연구와 창작을 연결할 수 있는 긴 호흡의 지원사업도 있었으면 합니다.

결국 이런 문제와 해결은 더 많은 사람의 연극에 대한 인식과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하는 길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철학은 거기서 언제나 인식을 이루는 개념들을 다루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의 과정에 바로 그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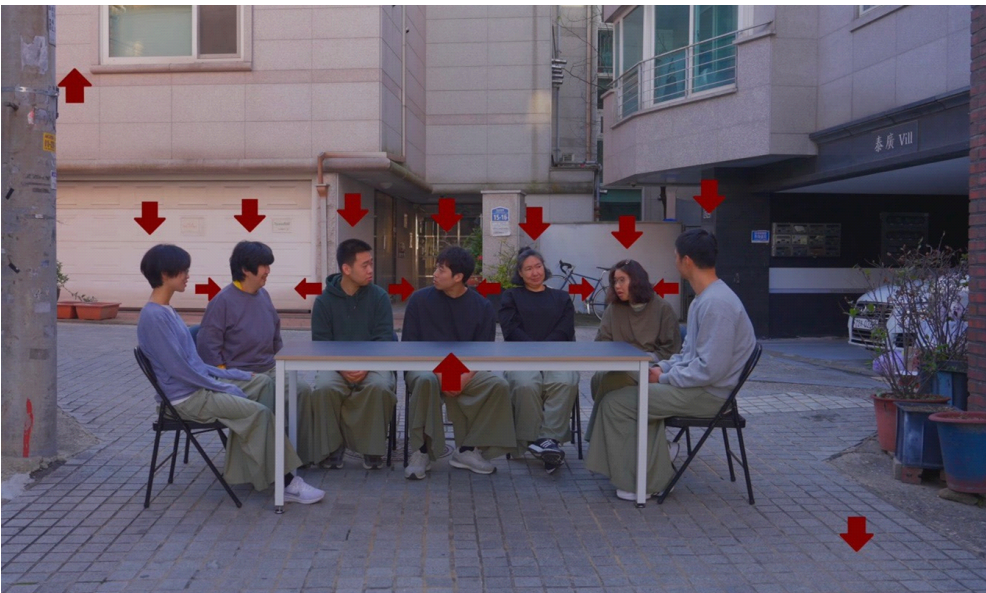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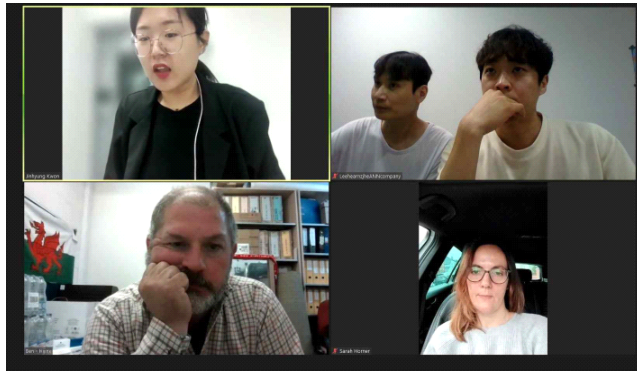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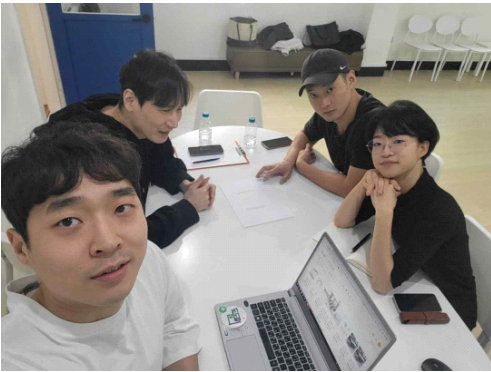
결과보고서 장애의 시선에서 벗어난 발달장애인 배우 참여형 연극 형태 연구
영상 구조, 기호, 연극

연구 이전-이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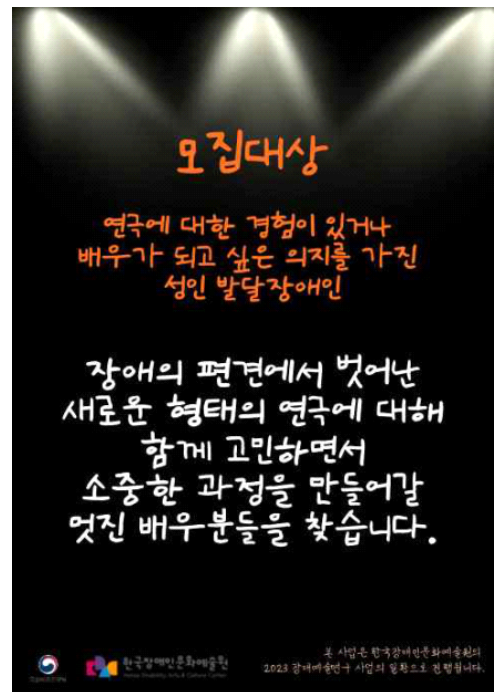
영상 2022년 장애예술연구 - 연구결과보고

영상 2024년 [연구발표] 발달장애인 배우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결과보고서 2024년 발달장애인 배우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에 관한 사례연구



2. 연구자의 이야기



2차 오디션 [배우능력]

1. 자기소개
- 자기소개서 활용해서 표현하기
2. 움직임 표현하기
- 상대 배우 따라서 움직이기
3. 동물 표현하기 (움직임, 소리, 말)
- 동물 카드 중에서 골라 자유롭게 표현해보기
4. 감정 표현하기 (움직임, 소리, 말)
- 5가지 감정카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 자유롭게 표현해보기
5. 질문과 대답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주최, 주관: 이현재 면접 퍼니

1차 오디션 [자기소개서]

1. 이름
박규형
2. 내가 좋아하는 것 (음식, 노래 ...)
김치찌개, 티보 김중국, 발라드, 랩
3. 내가 싫어하는 것 (말, 소리, 음식 ...)
팔, 버스 안에서 발로 차는 것, 큰 소리 (음역은 좋음)
4. 내가 잘하는 것
춤, 유튜브 방송
5. 연극(배우)을 하고 싶은 이유
TV에서 보는 배우들처럼 연기하고 싶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꿈이요)
주최, 주관: 이현재 면접 퍼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Korea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주최, 주관: 이현재 면접 퍼니

리뷰 / 발달장애인 배우와 함께, 연극을 다시 묻는다는 것

예술에 참여하고 자신의 표현을 공적인 장에서 드러내는 일은 특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락된 특권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이 배우가 되고, 무대에 서고, 자기 몸과 언어로 작품을 만드는 일 역시 문화적 권리이자 평등의 문제다. 여기서 평등은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방식으로 연기하고 동일한 수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무엇을 배우의 능력으로 인정해 왔는지, 어떤 몸과 인지 방식이 예술의 표준으로 설정되어 왔는지를 다시 묻는 데서 논의가 시작된다.

이현재 앤 컴퍼니의 「장애의 시선에서 벗어난 발달장애인 배우 참여형 연극 형태 연구」는 “발달장애인도 동료로 함께 무대에 오를 수는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발달장애인을 기존 연극 안에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를 넘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연극의 조건 자체를 어떻게 다시 생각할 것인가로 질문을 발전시킨다.

이 연구가 가장 먼저 넘어서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복지나 교육의 차원에 위치시키는 관점이다. 발달장애인의 연극 참여가 자기표현, 사회성 향상, 자신감 증진 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런 효과만을 강조하면 발달장애인은 예술을 만드는 주체라기보다 예술을 통해 도움받는 대상으로 남게 된다. 이현재 앤 컴퍼니는 장애 당사자를 처음부터 ‘배우’이자 ‘노동’하는 예술가로 다루려고 했다는 점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시혜적인 시선을 벗어난다. 배우의 캐스팅 기준을 인지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회성이 아니라 연극 경험과 배우가 되려는 의지를 주요 조건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연구진은 발달장애인 배우들이 취미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를 받는 일로서 연기에 참여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자기표현이나 치유의 언어로 미화하는 시선이 아니라 직업적 실천으로 바라본다.

장애예술의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기존 예술이 무엇을 ‘능력’으로 인정해 왔는지를 묻는 일이다. 토빈 시버스(Tobin Siebers)가 언급했듯, 장애는 이미 존재하는 미적 규범에 벗어난다는 상태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완전성, 숙련과 정상성에 관한 기존 판단이 얼마나 특정한 신체를 전제로 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¹⁾ 「장애의 시선에서 벗어난 발달장애인 배우 참여형 연극 형태 연구」에서 발달장애인 배우의 움직임에 관찰하는 장면들은 이러한 관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연구진은 발달장애인 배우에게서 나타나는 우발적이고 독특한 움직임을 새로운 예술적 가능성으로 읽는다. 그러면서도 이 관찰 결과를 발달장애인의 특별한 창의성으로 일반화하기보다는, 개인이 예술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으로 해석한다. 발달장애인의 특징을 일반화하지 않고 배우마다 다른 능력과 표현 방식을 발견하는 쪽을 택한 것이다. 이것은 특정 작품을 배우의 역량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배우의 몸과 반응으로부터 출발하여 연극의 구조와 형식을 선택하고 구성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연극 창작의 관습을 재검토하게 만든다.

이 연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주요 인터뷰 대상인 하이징스가 기준으로 제시하는 배우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재검토하고, 발달장애인 배우가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배우의 일상 상태를 파악해 전달하는 활동가, 이동을 돕는 활동지원사, 현장과 배우 사이에서 상황을 조정하는 연구자 등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파악한 것이다. 독립성을 개인에 내재한 능력으로만 이해한다면 지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은 전문예술의 영역에서 배제되기 쉽다. 그러나 실제 예술 활동에서 독립성은 타인과의 관계나 지원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1) Tobin Siebers, *Disability Aesthetic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10.

2. 연구자의 이야기

상태라기보다 관계 속에서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비장애 배우 역시 연출가, 제작자, 기술 스태프, 매니저 등 많은 사람의 협업과 지원에 의존한다. 장애인의 의존을 특별한 일로 여기지 않고 ‘의존’을 연극 제작의 과정에 필수적인 돌봄으로 놓을 때, 연극 만들기의 조건 자체를 다르게 상상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연극 참여를 확장할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함께 연극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극 형식을 다시 질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발달장애인이 기존의 연극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왜 연극이 반드시 그런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는가를 묻는다. 이 문제의식은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으로 이어진다. 결과물로 제작된 영상 <구조, 기호, 연극>은 화살표라는 기호를 통해 연극의 요소를 재구성하는 실험이다. 화살표는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는 ‘가능성’의 기호로 이동에서 점차 무대, 동선, 발화, 자막, 소리, 상태, 대본 등을 표시하는 기호로 확장된다. 이 시도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연극 형식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달장애인과 함께함으로써 “무엇이 연극을 연극이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향해 열린다.

「장애의 시선에서 벗어난 발달장애인 배우 참여형 연극 형태 연구」는 이 질문에 닿기까지의 성과만을 강조하지 않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배우를 모집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필요한 지원 체계를 확인하는 일, 예상과 달리 진행된 상황과 그에 따라 달라진 생각을 기록함으로써 이 연구는 장애예술 창작과 제작을 위한 중요한 아카이빙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록은 장애예술 현장에서 후속 작업을 시도하는 이들이 더 의미 있는 ‘실패’를 수행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장애예술을 연구하는 일은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 당사자의 주체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질문 자체를 끊임없이 갱신해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에서 시작된 질문들이 더 많은 예술 실천 현장에서 이어져, 장애예술의 언어와 형식이 더욱 풍부하게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양근애 /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연극평론가이자 드라마터그로 활동하며 극장 안팎을 넘나드는 감각과 언어를 포착하고자 한다. 비장애중심주의를 재전유-탈전유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글을 쓴다. 「드러냄과 머뭇의 미학적 실천」, 「장애연극의 시간성과 극장 바깥의 연극」, 「장애연극의 접근성과 재현의 딜레마」, 「돌봄 수행’ 관점에서 본 장애연극」 등을 썼다.

공영선

2024

쓰는 무용, 말하는 무용, 듣는 무용

[illegible]

공영선 / 안무가, '건강에 좋은 춤' 대표, '만마력' 운영자

bellus.secus@gmail.com

인스타그램 @iamnotyoungsun @maaaanhorsepower

연구 요약

연구 배경

보는 무용에서 벗어나기 /

본 연구는 『SF로 무용쓰기』(2022, 공영선)에서 출발한다. 7개의 동작을 무용수의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글로 풀어내며 ‘보는 무용’에서 ‘쓰는 무용’, ‘읽는 무용’으로 감각을 확장하는 시도였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공연 <(만)미래무용>(2023, 신촌극장)을 제작했었는데 시각 정보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발화와 사운드를 통해 ‘말하는 무용’, ‘듣는 무용’에의 실험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두 명의 시각장애인 관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며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향유할 수 있는 무용의 가능성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접근성을 위한 별도의 형식을 만드는 것보다, 무용 자체를 총체적인 감각 경험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시각적 스펙터클을 넘어 감각적 경험과 상상을 발생시키는 무용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무용의 매체적 한계와 특이점을 발견하고 이를 넘어서는 안무적 실천이 장애예술로의 관심으로 이어졌다.

연구 목적

재현의 대상이 없는 무용,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상상하기 /

본 연구는 ‘보는 무용’에서 벗어나 쓰고, 말하고, 듣는 무용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무용 형식을 실험한다. 이를 위해 ‘재현의 대상이 없는 무용’을 주요 조건으로 제시한다. 무용수의 신체를 직접 보여주는 대신 공통의 감각 정보를 제공하고, 관객이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바탕으로 춤과 움직임을 각자의 방식으로 상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무용은 무대 위 신체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의 상상 속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는 ‘같은 것을 동일하게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감각과 경험이 각자의 상상력을 발생시키고 이를 교환하는 예술의 형태를 탐색한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연이 아니라,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가 새로운 감각과 상상을 만들어내는 장으로서의 무용을 상상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 연구 결과 및 의의

다르게 보고, 듣고, 상상하는 무용 /

<쓰는 무용, 말하는 무용, 듣는 무용>은 개인 연구와 인터뷰, 연구모임, 리서치 워크숍, 결과공유회로 구성되어 진행했다. 초기에는 김원영과 장근영을 만나 장애의 관점에서 무용을 감각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후 두 사람이 자문과 창작에 참여하면서 연구자의 일방적인 관점이 아닌 서로 다른 경험과 감각을 연구 과정에 함께 놓을 수 있었다. 정대진과의 연구모임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듣는 무용’의 구체적인 방향을 탐색하였다.

‘쓰는 무용’ 리서치 워크숍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두 차례 진행되었으며, 각 6명이 참여했다. ‘소셜 뷰잉(social viewing)’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직접 ‘쓰는 무용’을 창작하고 서로의 작업을 나누었다. 하나의 작품에 대한 동일한 감상을 공유하기보다, 각자의 감각과 경험에서 발생한 서로 다른 상상을 나란히 놓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글쓰기는 무용을 설명하는 기록을 넘어 움직임을 감각하고 상상하는 방법으로 작동했다. 특히 서로 다른 감상을 언어로 나누는 과정은 ‘무용을 어떻게 감상하는가’를 개인의 능력이나 취향이 아닌 공동의 연구 대상으로 전환했다. 한 장애인 참여자는 눈을 감고 움직임의 심상을 떠올리는 경험을 통해 신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유와 가능성을 경험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다른 감각을 활용하는 것이 단순한 감각의 보완을 넘어 자신의 몸과 세계를 새롭게 상상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1월 결과공유회 ‘듣기와 보기’에서는 ‘듣는 무용’ 오디오 전시와 ‘쓰는 무용’ 인쇄물을 선보이고, 장근영이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 자리에서 연구 결과와 향후 방향을 공유했다. 연구 과정에서 생산된 글과 목소리가 관객이 직접

읽고 듣는 예술적 형식으로 확장된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중요한 가능성은 공동의 감상 방식 자체를 예술적 실천으로 삼는 것이었다. 서로 다른 감각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작품을 각자의 방식으로 경험하고 그 차이를 공유하는 과정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감상법을 넘어, 장애와 비장애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른 경험과 상상력을 예술의 재료로 삼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후속 과제

‘안무적 글쓰기’라는 질문을 계속하기 /

2024년 연구는 2025년 무용이론가 김재리와의 협력으로 이어지며 ‘안무적 글쓰기’라는 개념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장애의 감각으로 미래의 극장짓기’ 프로젝트의 워크숍과 공연 <Timber!>(2025)를 통해 글과 목소리, 촉각적 지도 등 다양한 감각으로 움직임의 실천을 이어갔다. 그러나 안무적 글쓰기가 무엇이며 어떤 조건에서 발생하는지는 여전히 막연한데 가까운 질문이다.

연구 과정을 돌아보며 앞으로의 방향을 가늠해 보자면, 2022년부터 38명의 참여자와 함께 생산한 ‘쓰는 무용’과 ‘안무적 글쓰기’의 텍스트와 창작 과정을 수집·분류하고 분석하여, 글쓰기·움직임·감각·사유의 관계와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문학적 글쓰기나 움직임의 재현과 구별되는 안무적 글쓰기의 개념과 방법을 구체화한다.

동시에 장애 당사자와의 협업과 공동 워크숍을 통해 서로 다른 신체와 감각이 안무적 글쓰기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거나, 김재리와의 협력 연구를 지속하며 이를 이론적·비평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과정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안무적 글쓰기를 고정된 방법론으로 규정하기보다, 서로 다른 감각과 경험이 만나 새로운 움직임과 상상을 발생시키는 창작의 실천으로 확장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서면 인터뷰 //////////////////////////////////

Q.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30년 동안 춤을 쳤고, 그 안에서 발견한 배움으로 공연을 만듭니다. 또한 제주에서 스튜디오 ‘만마력’을 운영하며 미래의 극장을 함께 상상해 보기를 부추기고, ‘건강에 좋은 춤’이라는 이름으로 내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예술을 궁리합니다. 이러한 탐구의 기저에는 공동체 차원에서 그려내는 건강한 미래에 대한 열망과 이에 다가서기 위해 다양한 몸, 경계 없는 상상력을 사려 깊이, 빈번히 나눠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합니다.

Q.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소감을 듣고 싶어요.

몹시 당황스러웠고, 기쁘게 받아들이는데 며칠 걸렸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2024년의 본 연구를 다시 되돌아보고 이에 대한 저의 관심과 진심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주셔서 매우 감사히 여기고 있습니다.

Q. 연구 지원사업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22년, 변방인 제주에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어떻게 작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던 시기에, 우연한 계기로 글을 안무의 재료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창작한 글을 목소리로 읊는 방식으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용을 시각적 정보가 아닌 청각적 정보로 옮겨내는 방식이 음성해설이라는 장치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용을 다른 감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넘어, 무용을 어떤 감각적 경험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고, 이 지점에서 장애예술의 관점과 필연적으로 맞닿게 되었습니다.

2. 연구자의 이야기

Q. 연구 과정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이나 발견이 있었다면 얘기해 주세요.

본 연구에서 만난 여럿의 협력자들을 통해 공동의 감각을 발견했던 순간들.

Q. 연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본 연구는 장애를 ‘감각의 진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들인 것에서 시작할 수 있었지만, (장애 당사자가 아닌 본인으로서) 이 관점을 수긍하고 동의를 구하는 손을 내미는데 늘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결했다기보다, 의심하고 미심쩍은 상태를 받아들인 듯합니다.

Q.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 분야, 이어서 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신가요.

(연구 지원사업 참여 이후 진행하셨던 활동 혹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025년, ‘장애의 감각으로 미래의 극장 짓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어떤 정확한 형태를 그리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장애의 감각으로부터 미래를 떠올리는 경향을 지속하고 있고, 극장과 무대를 그리는 데 있어 새로운 형식의 배리어 프리를 발명해 내기를 스스로에게 몹시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 위해서는 먼저 춤을 춰야 한다는 사실을 올해 알아차렸습니다. 출산 이후 춤을 거의 추지 않았는데, 춤을 추는 시간을 기꺼이, 기쁘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장문원과 지원사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깊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연구 결과 /

결과보고서 장애예술연구 <쓰는 무용, 말하는 무용, 듣는 무용>

워크숍 ‘쓰는 무용’ 리서치 워크숍_온라인 그룹. 2024.09.30.

영상 결과공유회 <듣기와 보기>. 2024.11.02. 포에버갤러리

영상 결과공유회 관객과의 대화

연구 이전-이후 /

공영선, 『SF로 무용쓰기』, 기다란, 2022.

2023 <(먼)미래무용>, 2023.12.07.~08. 신촌극장.

2025 ‘장애의 감각으로 미래의 극장짓기’ 프로젝트 워크숍·공연 <Timber!> 2025.8.01.~03. 윈드밀



2. 연구자의 이야기

2024년 장애예술 연구 지원

쓰는 무용,
말하는 무용,
듣는 무용

리서치 워크숍 '쓰는 무용'의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주최·주관: 공명선
후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온라인/ZOOM

2024.9.30 월
19:00 ~ 22:00

오프라인/제주
만마력 (제주시 서사로 6, 2층)

2024.10.2 수
13:00 ~ 16:00

2024년 장애예술 연구 지원

쓰는 무용, 말하는 무용, 듣는 무용
결과 공유회

듣기
와
보기

기초: 공명선
협력 연구: 김현영
홍근영
이정민
황재민
Rémi Klemensiewicz
최소라: 알대현
시공디자인: Rémi Klemensiewicz
그래픽디자인: 들트러들
주최·주관: 공명선
후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4.11.2 (토)
12:00 ~ 17:00

포에버갤러리 forever★
(서울 종로구 사직로 11 104호)

리뷰 / 서로 다른 몸이 같은 춤을 상상할 때

공연예술의 접근성은 오랫동안 완성된 작품 위에 얹어지는 장치로 다뤄져 왔다. 작품이 만들어진 뒤 별도로 번역되는 형태다. 무용은 이 번역이 특히 어려운 장르다. 대사도 서사도 없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움직임을 실시간 언어로 옮기는 일에는 선택과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공영선의 〈쓰는 무용, 말하는 무용, 듣는 무용〉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새로운 방향성에 골몰했다. 무용이 처음부터 글로 쓰이고, 말해지고, 들릴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것이다. 영국 그레이아이 극단(Graeae Theatre Company)이 ‘접근성의 미학(aesthetics of access)’이라 부른 실천과 같은 방향에 서 있다. 연구자는 이를 ‘새로운 장르로서의 배리어 프리’라 부른다.

시각을 빼면 무용에 무엇이 남는가? 연구는 이 질문에 답한다. 관객들은 춤을 볼 때 움직임을 자기 몸으로 함께 느끼는 ‘운동감각적 공감(kinesthetic empathy)’을 중요한 즐거움으로 이야기한다(Reason & Reynolds, 2010). 무용의 핵심이 망막에 맺힌 형상이 아니라 타인의 움직임이 내 몸에 일으키는 울림이라면, 그 울림은 시각 밖의 경로로도 일어날 수 있다. ‘쓰는 무용’ 텍스트들은 바로 이 울림을 겨냥한다. 공영선은 “들썩이는 폐의 움직임을 따라 갈비뼈가 아코디언을 연주한다”고, “적혈구들이 투 스텝을 하며 혈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동”한다고 쓴다. 이나래는 “겨드랑이가, 오금이, 관절 사이사이와 척추 마디마디가 온통 숨으로 가득하다”고 쓴다. 이 문장들은 시각으로 관찰한 장면을 묘사하지 않는다. 몸 안쪽의 감각에서 출발해 읽고 듣는 이의 몸에 또 다른 움직임을 일으킨다.

연구는 무용 음성해설을 둘러싼 오랜 딜레마에 새로운 답을 찾는다. 음성해설 지침은 보이는 것을 해석 없이 객관적으로 전하라고 한다. 그러나 대사도 서사도 없는 무용에는 이 원칙이 잘 들어맞지 않는다. 그래서 무용 해설가를 시 번역가처럼 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쓰는 무용’의 문장들은 이 제안을 창작으로 실현하고 있다. 소리와 촉감으로 쓰인 움직임은 모두 일인칭의 몸을 기준으로 한다. 더 근본적으로, 이 텍스트들에는 번역해야 할 ‘원본’이 따로 없다. 텍스트가 곧 안무이자 작품이다. 연구자가 ‘재현의 대상이 없는 무용’이라 부른 구조 안에서 접근성은 작품을 뒤따르는 번역이 아니라 작품이 생겨나는 조건이 된다.

연구에서 장애가 있는 몸이 스스로의 움직임을 쓰는 주체로 등장하는 부분도 매우 흥미롭다. 김원영의 텍스트에서 휠체어는 ‘의자-기계’로 불린다. 문손잡이를 당기고 미는 일상의 동작은 몸과 문과 바퀴의 힘이 맞서다 균형을 이루는 순간으로 섬세하게 묘사된다. 이 텍스트는 휠체어를 쓰는 몸을 바깥에서 설명하지 않는다. 그 몸만이 아는 힘의 흐름을 그대로 춤으로 만든다. 워크숍 참여자들의 글도 하나의 몸을 표준으로 삼지 않는다. 문한술은 “어깨너비로 양발을 벌린다”고 쓴 뒤 곧바로 “양이 아닐 수도 있고 발이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인다. 이 문장들은 서로 다른 몸이 각자의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포용적인 안무 언어가 짧은 워크숍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연구는 감상이라는 행위를 서로의 차이를 나누는 일로 바꾸어 놓는다. 연구자는 이토 아사(Asa Ito)가 소개한 ‘소셜 뷰잉’의 아이디어를 빌렸다. 개인의 감상을 각자의 경험으로 남겨두는 대신, 그 차이를 나란히 꺼내놓고 “고유한 몸들의 고유한 상상들을 나누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연구가 지향하는 바는 비장애인이 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특수한 공연이 아니다. 차이에서 비롯하는 서로 다른 상상력을 교환하는 장으로서의 예술이다. 이때 접근성은 장애인을 위한 시혜가 아니라 모두의 감각을 넓히는 공동의 자원이 된다.

2. 연구자의 이야기

김원영은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2024)에서 온전한 평등이 “능력의 측면에서 지극히 차별적인 관계에 놓인 존재들이 상대의 힘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달성된다”고 썼다. 서로 다른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의 상상을 존중하며 나누는 ‘쓰는 무용’의 자리는 그 평등이 예술 안에서 구체적인 형식을 얻는 한 방식이다.

이러한 성과는 장애예술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연구자가 강조하듯 이 작업은 무용 장르 내부의 매체 실험이자 사고 실험이기도 하다. 무용이 반드시 보여야 한다는 전제를 내려놓으면 무용은 쓰기와 말하기, 듣기로 확장되고, ‘무엇이 무용인가’라는 질문 자체를 넓힐 수 있다. 장애예술의 실험이 곧 동시대 무용의 경계를 넓히는 실험이 되는 것이다.

연구의 접근 방식도 눈여겨볼 만하다. 연구자는 먼저 무용을 글로 쓴 책 『SF로 무용쓰기』(2022)를 냈고, 그 글의 일부로 관객이 눈을 감은 채 말과 소리로 감상하는 공연 <(먼)미래무용>(2023)을 만들었다. 공연에 대한 시각장애 관객의 피드백이 이번 연구의 질문이 되었다. 작품이 연구로, 연구가 작품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결과공유회 <듣기와 보기>도 연구 결과를 보고서의 문장이 아니라 오디오 전시와 인쇄물, 낭독이라는 감각의 형식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가 장애예술 창제작 현장에 남긴 기여는 분명한 듯하다. 재현 가능한 ‘쓰는 무용 워크숍’, 14명 각자가 쓴 움직임 텍스트,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 예술인이 창작의 동료로 만나는 협업 모델이다. 접근성 논의가 주로 관람을 돕는 방식에 집중해 왔다면, 연구는 그 위에 ‘창작 방법론’이라는 층을 더한다. 성과가 다음 무대로 이어지고, 텍스트와 낭독 자료가 다른 안무가와 무용수, 음성해설 작가의 창작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연구가 열어 둔 가능성, 곧 무용수가 스스로 자기 움직임을 말로 옮기는 해설가가 되는 길이 무용 교육과 창작 현장에서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서로 다른 몸이 같은 춤을 상상할 수 있을까? <쓰는 무용, 말하는 무용, 듣는 무용>은 이 물음에 쓰고 말하고 듣는 실천으로 답했다.

참고문헌

- 김원영. (2024). 온전히 평등하고 지극히 차별적인. 문학동네.
Reason, M., & Reynolds, D. (2010). Kinesthesia, empathy, and related pleasures: An inquiry into audience experiences of watching dance. *Dance research journal*, 42(2), 49-75.

문영민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장애인의 노동과 건강, 장애학을 가르치고 연구한다. 장애인의 공연예술 접근성과 장애(예술)인의 좋은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 『나는 휴먼』(2022)을 공동 번역했으며, 2021-2022년 웹진 이음 기획위원으로 활동했다.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2024

정신장애인이 체험한 '공간'을 연극화하는 창작
방법론 탐구: 당사자 주도적 창작 워크숍 개발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 공연예술 독립기획자·작가

madpresence21@gmail.com

인스타그램 @madpresence

2023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창·제작지원) 미친회사 프로젝트(미친식당
가오픈)

2025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창·제작지원) 매드 어사일럼: 폐쇄병동에
대항하는 공간

2026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창·제작지원) 미친 마을:미래의 미친 공간

연구 요약

“2021년도에 <우리는 미쳤다!> 공연을 마치고 나서 극장은 관객과 배우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는 공간, 안전하게 보고 떠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위험하더라도 갈등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미친존재감의 첫 번째 프로젝트인 <미친집으로 초대합니다>(2022)는 집의 형태를 가진 공간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정신장애인이 나 자신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탈시설·탈원화가 각자의 삶에서 어떤 문제인지 당사자들과 함께 질문을 던지고 얘기하며 찾아나가는 공연을 하고 싶었다.

이듬해에 <미친식당 가오픈>(2023)까지 거치면서 우리는 집이나 일터에 대한 불만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었지만, ‘폐쇄병동’은 여전히 잘 얘기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당사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봉인되어 있는 듯한 기억... 폐쇄병동과 관련해서 의료적 모델을 비판하고 사회적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말들조차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이 계속해 주고 있는 느낌이었다. 당사자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진짜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느끼는 것들, 이를테면 먹는 것이나 냄새, 소리 같은 감각적인 것에 관한 얘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조금 부실할지라도 당사자의 주관적인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얘기가 더 많아졌으면 했다.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얘기하려면

우리는 일본 우라카와 섬에 있는 ‘베텔의집(べてるの家)’에서 개발한 ‘당사자 연구’의 관점을 우리의 프로젝트에 접목해 폐쇄병동의 기억에 접근해 보기로 했다. 당사자 연구는 정신장애인이 단순히 수동적인 환자로서 전문가에게 치료받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신장애를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연구자가 되도록 하는 연구 방법이다. 나아가 당사자 연구는 정신의학이 정의한 진단명과 약물 중심의 치료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자신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그 고통을 대한 지원과 돌봄을 스스로 개발하는 과정을 수반한다. 불편함은 어디에서 오는지, 왜 차별과 억압을 받게 되는지 등을 심문하며 새로운 유형의 자기 지식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얘기할 수 있고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었다. 당사자가 현실의 공간에서 경험하는 통제와 억압을 1차 장벽, ‘사회적 장벽’이라 부를 수 있다면 그 장벽에 대한 경험을 말하는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무지와 불신을 2차 장벽, ‘표현의 장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신장애인에게 자신을 자유롭게 못하게 했던 공간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하며, 그 체험을 표현하기 위한 매개를 탐색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폐쇄병동이라는 유형 같은 공간의 경험

그런데 폐쇄병동은 재현될 수 있는가? 폐쇄병동과 같은 억압적인 공간의 경험을 정신장애인에게 있는 그대로 재현하라고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면 창작 과정에서 이차적인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경험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에 갇혀 있을 때, 이들이 관객에게 보여주는 ‘광경’이 사회적 이슈나 문제의 차원으로 인지되면서 당사자의 경험이 또다시 대상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더불어 창작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의 전문성으로 인해 정신장애인은 전문적인 재현 기술을 학습해야 하는 존재가 되기 쉽고,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계와 배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사자가 체험한 공간들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재현’의 모델과 구별되는 대안적인 창작 방법론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장애와 질병의 수만큼 다양한 창작 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신장애인의 고유한 언어를 그들의 삶 자체에서 발견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매개를 찾아내는 워크숍을 개발하고자 했다. 이 워크숍을 경유해 우리는 폐쇄병동이라는 유형 같은 공간의 경험에 대해 발언하는 방식을 찾아내고 싶었다. 다만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그 공간에 곧바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거처온 ‘공간’들의 연대기라는 맥락을 짓고 그 안에 폐쇄병동을 위치시켜 보기로 했다.

움직이는 지도: 미친 경험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움직이는 지도: 미친 경험이 날뛰고 있습니다>라는 과정공유회로 수렴되었다. 허구적인 드라마 연극으로 표현하는 대신 전시, 토크, 퍼포먼스가 복합된 다원적인 공연을 추구하고자 했다. 극단 애인 측에서 연습실 공간을 내어주었고, 우리는 연습실 벽면에 공유회 전에 관객들이 편하게 우리들이 기록한 폐쇄병동의 감각, 기억, 키워드를 둘러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 관객들과 간식과 차를 나누어 마신 후에 1부 프로그램 ‘미친 심시티’를 시작했다. ‘미친 심시티’는 당사자들이 폐휴지 박스를 활용해 자기 삶에서 행복이나 불행을 안겨주었던 공간을 제작하고, 이를 무대 공간에 배치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기억을 들려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신장애 당사자가 자신의 공간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서로의 기억을 심시티의 형태로 교차시키기 위해 기획된 것이었다.

2부 ‘폐쇄병동 언박싱’은 관객이 상자에서 제비를 뽑으면 거기에 적힌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당사자들이 들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폐쇄병동의 소리, 냄새, 습도, 질감 등의 감각적인 요소들이나 그 안에서 겪거나 목격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관객들과 편하게 공유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었다. 3부는 당사자들의 퍼포먼스로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동준의 세이브존’은 당사자가 과거에 살았던 주택과 폐쇄병동이라는 공간을 대조해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었다. 민조와 동준이 대화를 나누며 슬라이드를 통해 그 공간들의 사진을 관객과 공유하고 각각의 공간에 얹힌 밀폐와 개방의 감각, 그리움과 외로움의 감정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혜원의 프리마이크’는 당사자가 마이크 하나를 들고 앉아서 자신이 그날 기분에 따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들려주는 형태의 프로그램이었다. 퍼포먼스의 형태로 자신을 드러내기 부담스러워하는 당사자에게 가장 편한 형식을 찾아주기 위해 고민한 결과였다. ‘옥상의 흔적’은 당사자가 그려왔던 회화 작품과 수피춤, 옥상에서 강아지와 함께 동그랗게 맴을 돌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을 연관 지어서 관객에게 들려주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유선은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 공간에서 수연과 대화를 나누며 작품을 해설하고 시를 낭송했다. 마지막을 장식한 ‘아부다비의 만물상’은 급성기가 찾아왔을 때 옷장에서 다양한 옷을 꺼내입으며 방구석에서 드랙과 유사한 공연을 했던 영신의 기억을 시적 텍스트의 형태로 가공하여 낭송하는 퍼포먼스였다. 정신장애 당사자가 착란 속에서 마주하는 자유와 예술적 영감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었다.

당사자와 비당사자의 경계를 가로지른 대화의 공간 확장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는 재현의 문법에 따르지 않고도 폐쇄병동을 연극화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게 되었다.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는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지, 관객들과 어떤 관계성으로 만나야 하는지, 전시와 토크와 퍼포먼스라는 서로 다른 형태를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울러 관객들이 나누어준 이야기를 통해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험이 없는 비당사자일지라도 격리와 통제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폐쇄병동과 연속된 구조적 억압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는 우리에게 폐쇄병동을 비롯하여 정신장애인의 당사자적 기억에 대응하는 표현 형식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비당사자 사이에 가로놓인 경계를 가로질러 대화의 공간을 확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

서면 인터뷰 //////////////////////////////////

Q. 활동하는 단체 소개를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미친존재감’은 ‘Mad Studies(광기학)’를 연극으로 실천하는 연극 단체입니다. ‘제정신중심주의’에 저항하며, 미친존재의 살아있는 경험을 함께 탐구합니다. 미쳤다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세상과 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미친존재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친공간을 창작합니다. 미친존재감은 미친돌봄을 하는 것이 창작입니다. (성연)

2. 연구자의 이야기

Q.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소감을 듣고 싶어요.

미친존재감이 많이 확산될 수 있었으면 했습니다. 아직도 미친존재감이 연극을 한다고 말하면 ‘연극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친존재와 함께 연극을 창작할 때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미친존재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확산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친존재감이 많이 알려지면 솔직히 기분은 좋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미친존재를 더 많이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연극을 하고 싶었지만, 기존의 연극 창작 방법으로는 저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겨져 있는 미친존재가 더 많이 만나면서 미쳤다는 것이 더 복잡해지고 모호해지면 좋겠습니다. (성연)

Q. 연구 지원사업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미친존재감의 활동 이야기를 듣고 저도 참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준)
- 미친존재감의 작업이 기존 연극의 작업 방식을 넓힌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수연)

Q. 연구 과정에서 의미 있었던 순간이나 발견이 있었다면 얘기해 주세요.

- 또 다른 인연을 만나서 좋았고 과정이 신박하고 부담 없고 창의적이고 재밌고 좋았어요! (동준)
- 억압이 폐쇄병동뿐 아니라 일상 속 다양한 공간과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공간에서 경험한 소리, 촉감, 냄새,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동준, 해원, 영신, 유선이 각자의 경험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수연)

Q. 연구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연구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동료들 내에서는 폐쇄병동에 관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그 내용을 공유회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발표할 때 당사자가 부담을 느끼거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논의 끝에 폐쇄병동과 관련된 키워드를 상자 안에서 뽑고 관객과 편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폐쇄병동과 지역사회 내에서 겪은 일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당사자의 퍼포먼스는 기록 영상에 담지 않았습니다. (민조)

Q.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 분야, 이어서 하고 싶은 연구가 있으신가요.

미친존재감은 보이지 않는 장벽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장벽을 부셔서, 그 조각조각을 주섬주섬 모아, 돌봄을 기워 넣은 미친공간을 계속 지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친공간이 되는 미친마을을 만드는 중입니다, 이 미친마을에서 관객이 주민으로서 함께 미친돌봄을 발견하는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미친존재감의 동료를 찾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성연)

Q. 마지막으로 장문원과 지원사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알려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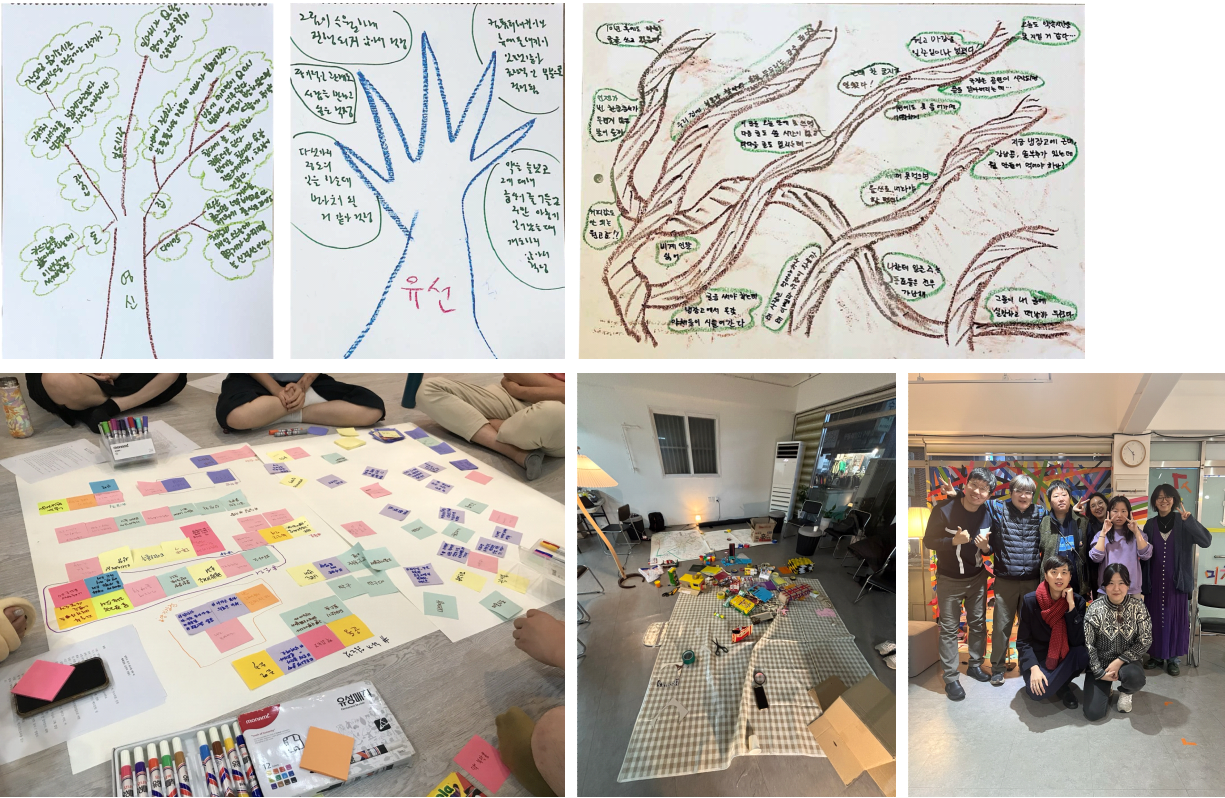
미친존재-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가 중심이 되는 연극 워크숍 같은 것을 시도해 보고 싶고요. 일본에 아웃백 액팅 스쿨(OUTBACK 프로젝트)이라는 정신장애인 연극학교가 있는데, 예전에 줌(Zoom)으로 미팅도 하고 연락도 했어요.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한국에서 공연할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체 인원이 적다 보니 국제교류를 하면서 공연까지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진짜 재미있는 연극하고 있으니 꼭 연결해 주세요.

연구 결과 /

과정기록집 <움직이는 지도: 미친 경험이 날뛰고 있습니다>
과정공유회 <움직이는 지도: 미친 경험이 날뛰고 있습니다> 2024.11.28.~30. 극단 애인 연습실(3회 공연)

연구 이전-이후 /

비평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미친식당> 춤추는 변수들. 김민조 연극평론가. 2023.12.27. 웹진 이음
행사 <움직이는 지도> 영상상영회 2025.7.27. 서울예술인지원센터 2층 아고라
공연 <매드 어사일럼 : 폐쇄병동에 대항하는 공간> 2025.10.17.~10.23.(목) 문래예술공장 갤러리 M30
출판 손성연, 『미친존재감: 사라졌던 미친 공간이 돌아왔다』, 화이트리버, 2025.11.20.
비평 장애예술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비평 프로젝트① 우리는 ‘미친 상태’를 긍정할 수 있을까?. 서수빈
공연예술비평가. 2025.12.03. 웹진 이음



2. 연구자의 이야기

미친존재감
경험을 교차시키는 과정 공유회

[2024년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장애예술 연구 지원사업 선정]



주최/주관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움직이는 지도

: 미친 경험이 날뛰고 있습니다

폐쇄병동 입원 경험이 있는 미친존재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함께 지도 위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움직이는 지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이 지도를 넓히고 어지럽히고 산만해져봐요.

2024년 11월 28일 - 30일

28일(목), 29일(금) | 전시 오픈 19:00 / 과정 공유회 19:30

30일(토) | 전시 오픈 18:00 / 과정 공유회 18:30

극단 애인 연습실

서울 구로구 오류로8길 108-2

리뷰 / 길을 잃는 것부터 시작하는 지도

미친존재감 프로젝트의 2024년 연구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폐쇄병동은 재현될 수 있을까?” 이들의 연구 결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얼마나 오래, 에둘러 걸어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궤적에 가깝다. 「정신장애인이 체험한 ‘공간’을 연극화하는 창작 방법론 탐구: 당사자 주도적 창작 워크숍 개발」은 애당초 하나의 독립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2021년 〈우리는 미쳤다!〉에서 출발해 〈미친집으로 초대합니다〉(2022), 〈미친식당 가오픈〉(2023)으로 이어진 미친존재감의 공간 연작 중 마지막 네 번째 마디다.

흥미롭게도 지원신청서의 제목에는 ‘공간’에 작은따옴표가 붙어 있었지만, 성과보고서의 제목에서는 그 따옴표가 사라졌다. 사소한 표기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걸 1년의 실행을 거치며 ‘공간’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유보해 둔 개념이 아니라, 이들 스스로 정의해 낸 말이 되었다는 신호로 읽어도 좋지 않을까?

두 겹의 장벽, 연구자가 된 당사자들

연구계획서는 정신장애인이 처한 곤경을 두 겹의 장벽으로 나누는 데서 출발한다. 현실의 공간에서 겪는 통제와 억압을 ‘사회적 장벽’으로, 그 경험을 말하려 할 때 부딪히는 무지와 불신을 ‘표현의 장벽’으로²⁾. 장애 담론이 흔히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이라는 이분법 안에서만 논의되어 온 것과 달리, 이 연구는 ‘경험을 말하고 표현하는 과정’ 자체를 별도의 장벽으로 분리해 냈다. 겪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말해도 들리지 않는 것 사이에 또 하나의 문턱이 있다는 것을 포착한 것은 연구자의 섬세한 관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러한 섬세함은 연구팀을 짜는 방식에도 그대로 옮겨 왔다. 참여자 11명 가운데 정신장애 당사자인 유선, 동준, 혜원, 영신 네 사람이 함께했고, 이들의 목소리를 따라 연구의 여정을 하나씩 일궈냈다.

빌려온 지도를 버리고

이 연구에서 내가 가장 마음이 오래 머문 대목은, 계획 단계에서 가져온 방법론을 스스로 의심하고 결국 폐기해 버린 장면이었다. 연구팀은 애초 일본 우라카와 베델의집(べてるの家)에서 개발된 ‘당사자 연구’ 모델을 정유석 강사를 통해 배워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4년 10월의 기획 대담에서, 대표 연구자 손성연은 당사자 연구가 전제하는 ‘고통과 자기 자신의 분리’가 결국 자신들이 비판하고 싶었던 의료적 언어에 가깝다는 걸 실행 과정에서 알아챘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거 다 버리고 우리가 다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어요.”³⁾

빌려온 지도를 손에 쥐고 나아가다가, 그 지도가 가려는 곳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내려놓은 뒤 직접 그리기 시작한 것: 이것을 나는 이 연구가 도달한 가장 큰 성취라고 부르고 싶다. 연구 방법이 연구에 앞서 완성되어 있지 않고,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의 실제 경험과 부딪히며 계속 다시 쓰였기 때문이다.

2) ‘표현의 장벽’은 김민조가 연구 기획 회의 중 제안한 용어로 지원신청서에 명시되어 있다.

3)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움직이는 지도 기획대담』(2024.10.11.), 『움직이는 지도』(과정기록집), 14쪽.

2. 연구자의 이야기

이름 없던 장벽에 이름을 주는 일

연구팀이 스스로 지어낸 ‘표현의 장벽’이라는 이름은, 철학자 김애령이 이야기하는 ‘듣기’의 반대편—침묵이 애초에 들릴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하는 구조를 가리킨다.⁴⁾ 이는 미란다 프리커(Miranda Fricker)가 인식적 부정의 논의에서 제시한 해석적 부정의(hermeneutical injustice) 개념과도 조용히 공명한다.⁵⁾ 한 집단이 자신의 경험을 이해 가능한 언어로 옮길 해석의 자원 자체를, 그 집단이 오래 주변화되어 온 탓에 사회가 미처 만들어 주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부정의다. 미친존재감이 폐쇄병동의 경험을 ‘재현’하는 대신 ‘흔적’을 따라가기로 한 것, ‘움직이는 지도’라는 비선형적 방식을 택한 것은, 기존의 언어가 애초에 이 경험을 들을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는 판단에서였다.

길을 잃는 것이 방법이 될 때

이들이 연구보고서로 제출한 과정기록집의 제목 ‘움직이는 지도’는 말하기-듣기 워크숍 개발 회의 도중, 참여자 수연이 이전 워크숍 경험을 떠올리며 건넨 말에서 왔다. 폐쇄공간에 관한 미친 경험을 엮어낸 이 지도에는 정해진 길이 없다. “이 지도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다.”⁶⁾ 길을 잃는 것 자체를 방법으로 삼는다는 것—이건 재현의 실패에서 나온 차선택이 아니라, 재현이라는 틀에 가둘 수 없는 경험 앞에서 팀이 고안해 낸 설계였다.

흥미로운 건, 이 팀이 자신들의 방법론을 부르는 이름을 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손성연은 참여자 영신이 그린 지도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기워넣기’라고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기저기 기워져 있는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⁷⁾ 연극화가 재현이 아니라 기워넣기였다는 것—지원신청서 제목의 ‘연극화’는 그렇게 1년의 실행 끝에 재정의되었다. 이 ‘기워넣기’에는 애초에 완성이라는 목적지가 없었다. 이들의 ‘움직이는 지도’는 “‘공간’의 연극화”라는 목표를 이루고 멈추는 결과물이 아니라, 그 목표 자체를 매번 새로 열어 두는 진행형이었던 셈이다.

여전히 꿈틀거리며 확장되는 ‘움직이는 지도’

이 연구의 성과는 과정공유회나 웹에 공개된 과정기록집에서 멈추지 않았다. 2024년의 연구가 ‘재현이 아닌 흔적’이라는 우회로 미뤄 두었던 과제—폐쇄병동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은 이듬해 7월 〈움직이는 지도 영상 상영회〉로 관객을 한 차례 만났고, 곧이어 10월 전시-공연의 형식으로 〈매드 어사일럼: 폐쇄병동에 대항하는 공간〉이란 이름으로 또다시 관객과 조우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손성연은 미친존재감 프로젝트의 지난 5년의 궤적을 한 권의 책 『미친존재감: 사라졌던 미친 공간이 돌아왔다』로 묶어 냈다. 연구(2024)에서 영상상영회(2025)와 공연(2025)으로, 다시 출판(2025)으로—세 개의 다른 형식으로 확장되었던 궤적에 더해, 2026년 현재 미친존재감은 노들장애인야학의 구구절절 권리공방과 함께 ‘연극이기도 하고, 동시에 연극이 아니기도 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 성과공유회 직후 관객이 주민이 되어 함께하는 〈미친 마을〉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연극적 실천은 2026년 양근애의 논문을 통해 ‘미친 돌봄(mad care)’ 관점에서 개념화되어 학술적으로도 정신장애 당사자주도 예술활동의 의미로 확산되고 있다.⁸⁾

4) 김애령, 『듣기의 윤리: 주체와 타자, 그리고 정의의 환대에 대하여』, 봄날의박씨, 2022.

5) Miranda Fricker, Epistemic Injustice: Power and the Ethics of Knowing,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한국어판: 미란다 프리커, 『인식적 부정의: 권력, 편견, 그리고 앎의 윤리』, 유기훈·정선도 옮김, 오월의봄, 2025.

6)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기획하는 마음」, 『움직이는 지도』(과정기록집), 7쪽,

7)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말하기 듣기 워크숍 개발 과정대담」, 『움직이는 지도』(과정기록집), 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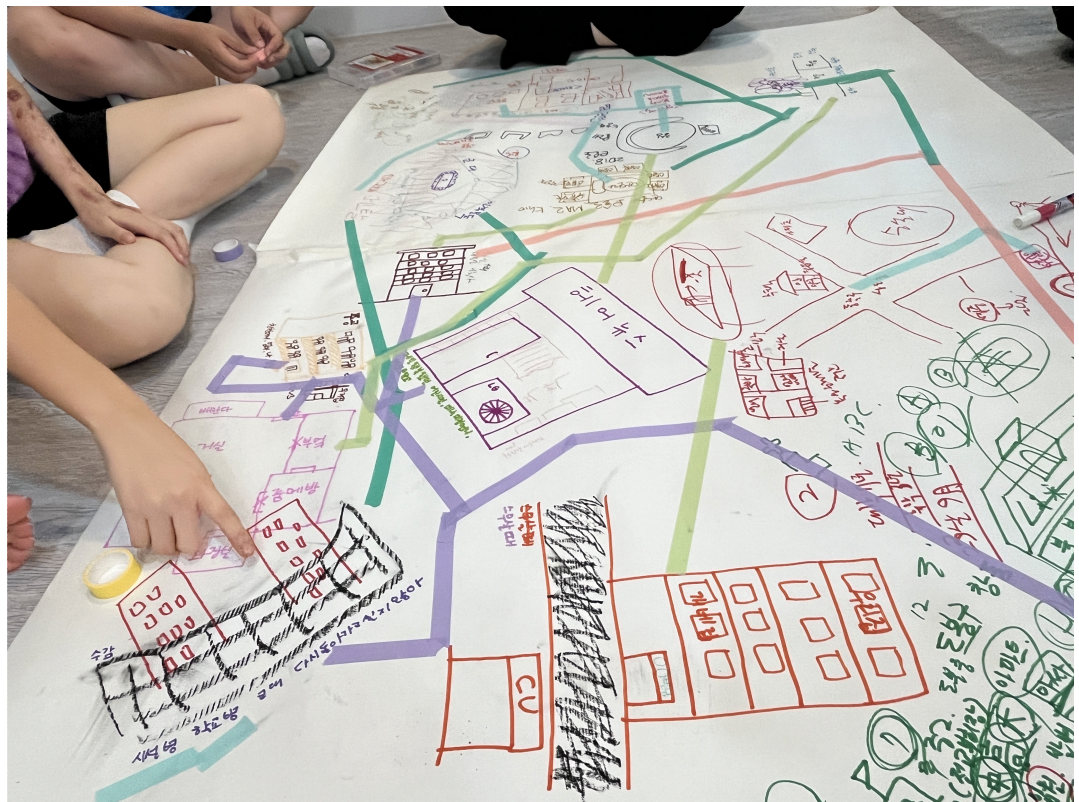
8) 양근애, 「‘미친 돌봄’의 공간정치학: 정신장애의 연극적 실천」, 『한국예술연구』53호, 2026, 27-50쪽.

길을 잃는 것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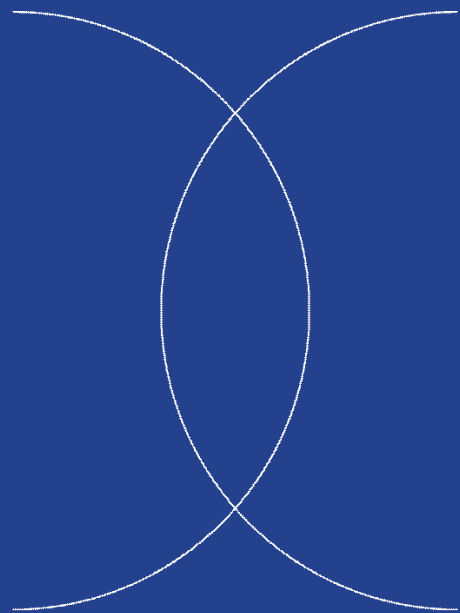
길을 잃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방법이 될 수 있다. 빌려온 모델을 버리고 다시 쓰는 것. 계획대로 되지 않은 해에 다른 곳으로 방향을 트는 것. 집에서 식당으로, 식당에서 폐쇄병동으로, 연구에서 다시 공연과 책으로-이 순환은 어디에서도 깔끔하게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미완의 흔적이야말로-질문이 실천이 되고 실천이 연구가 되고 연구가 다시 실천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이야말로, 이들의 작업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나는 그 순환에, 그리고 그 순환을 함께 만들어 온 모든 이름에 존경을 담아 이 글을 쓴다.

최보연 /

상지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부교수, 문화정책연구자. 예술경영, 문화정책을 공부했다. 늘 그렇듯 이론과 현실은 달랐기에, 정책과 예술 현장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균열이 가진 힘을 상상해 보려고 노력한다. 최근에는 공연예술 접근성과 장애예술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3. 전문가의 이야기



다양하게 펼치고, 널리 퍼지게

일시 2026년 8월 24일 오후 2시~4시 장소 모두미술공간 회의실
대담 문영민 양근애 최보연 진행 김신애(예술지원부) 정리 전민정(비사이드컬처)

김신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은 그동안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안에서 ‘장애예술 연구 지원’ 유형으로 다양한 연구를 지원해왔고, 현재 2027년 지원사업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이번에 그동안의 ‘장애예술 연구 지원’사업을 검토하면서 하신 생각이나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 _ 전체 지원사업 안에서 생각하기

최보연 먼저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내에서 ‘장애예술 연구 지원’(이하 연구 지원)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구조적인 부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면 5개 유형 중에서 ‘창·제작 기반 지원’의 범주에 속해 있고, 장애예술이 담론화되고 확산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애예술 생태계 전체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지원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귀하고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해요. ‘창·제작 활동 지원’에서는 ‘예술 창·제작 과정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어서 이런 리서치 지원형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김신애 ‘예술 창·제작 과정 지원’은 작품 발표 이전의 창작 과정 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장애예술인과 장애예술단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 지원은 장애예술인(단체)과 비장애예술인(단체)도 신청할 수 있고 창작자, 기획자뿐만 아니라 실연자, 연구자, 비평가 등도 신청할 수 있고요.

최보연 그러고 보면 사실 연구 지원은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트랙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연구 지원이 장애예술계와 비장애 예술계, 학계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공론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사업 요강을 보면 ‘예술 창·제작 과정 지원’은 좀 더 열려 있고 유연해 보이는데, 오히려 연구 지원은 ‘필수 이행사항’, ‘결과발표 1회 이상 개최’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연구는 진행 과정에서 가설이나 계획이 수정될 수 있고 결과물의 내용이나 형태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훨씬 더 계획을 따르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느껴졌어요. 이 부분이 좀 더 열려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근애 ‘예술 창·제작 과정 지원’과의 차이는 ‘기록물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인 것 같아요. 연구 지원의 경우, 기록물이 반드시 논문 형태일 필요는 없고요, 성과를 공유하는 보고서 형식이어도 괜찮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해도 괜찮을 듯합니다. 이걸 공유해서 언제든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열어볼 수 있으면 그다음 연구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진전된 연구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처음부터 기록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잘 정리한다’는 것이 명시되면 다른 지원사업과 구분되지 않을까요. ‘연구 지원’과 작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 지원’과의 차이는 결국 논리적으로 기록해서 서로 어떤 점이 좋았고 나빴다는 시행착오를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3. 전문가의 이야기

#예산 _ 중요성 고려해 점차 확대하기

최보연 지금 연구 지원 예산은 ‘예술 창·제작 과정 지원’ 예산의 약 1/3수준이더라고요. 기반을 지원한다는 상징성에 비해 지원 비중이 높지 않으니 점차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년 신청은 증가하고 선정률은 낮아지고 있으니, 지금처럼 지원 금액을 고정하지 않고 규모의 스펙트럼을 두면서 연구 방식에 따라 조정해서 다르게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양근애 여러 기관의 연구 지원사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장애예술 연구 지원금이 대단히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떤 연구자에게는 여전히 소외된 분야라 할 수 있는 장애예술 연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선정률이 높지 않다는 것은 신청을 많이 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지원 금액은 개인이라 해도 현재 수준인 800만 원 정도로 유지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연구 논문 한 편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에 투여되는 시간과 비용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우니까요.

#유형 _ 여러 유형을 제시하고 열어두기

김신애 저희가 첫 회의에서 크게 ‘실천형’(창작·교육 등 현장에 적용하는 연구)과 ‘담론형’(장애예술계 이슈나 담론을 다루는 연구)으로 구분해서 보자고 했는데, 지원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구분해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최보연 그건 우수 연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분류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당시에는 두 유형에 약간 맞물리는 부분이 있으니, 추가로 ‘결합형’도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했었는데요. 다시 생각해 보면 굳이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업 목적에 이슈 생성이나 담론 확산, 실천의 양상을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단순히 유형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본인의 연구 성격이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으면서 예를 들면 담론형인지, 실천형인지, 결합형인지를 기술하게 하는 방식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문영민 저도 연구를 진행하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처음부터 유형을 체크하게 하기보다는 연구 결과물을 이런 형태로 낼 수 있다는 식으로 미리 안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천형이면 워크숍을 할 수도 있고 전시를 할 수도 있고, 담론형이면 논문으로 갈 수도 있고, 유형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양근애 저희가 검토한 3개년, 28건의 연구에 담론형만 있거나 실천형만 있지는 않았잖아요. 첫 회의에서는 장문원에서 7가지로 분류한 것(교육 프로그램, 사례 기반, 접근성, 창작 기법, 개념·담론, 비평, 작품 개발)을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눠보자고 했는데요. 그 7가지 예시는 지원자가 신청할 때 제안한 게 아니라 연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후에 임의로 분류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향을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보았을 때, 실천형인데 이론이 부족하다거나 이론형인데 실천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소모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그런데 연구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지원자 입장에서는 담론형인지 실천형인지를 선택하기보다, 다양한 연구가 다 가능하다는 것을 예시로 볼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훈련된 사람만 신청해야 하는 것처럼,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일 수 있으니까요. 창작 과정을 잘 정리하면서 발견한 것도 연구가 될 수 있고, 해외 사례에서 받은 인사이트를 정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알려주는 거죠. 사실 행정의 입장에서는 유형을 체크하게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렇지만 늘 중간 지대가 생기고 새로운 것을 창안하기도 하니까 지원사업 공모 요강에는 할 수 있는 연구의 범위를 열어놓고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하면 좋겠어요.

최보연 저도 동의하는 게 사업 내용이 ‘장애 예술계의 이슈 담론 형성을 위한 리서치’, ‘장애예술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한편으로 '리서치', '교육 프로그램'이란 용어는 좀 딱딱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형을 나열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다양하게 포용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덧붙여서 창·제작과 관련된 접근성 실천을 고민하거나 직접 연구하는 분들도 현장에 많이 계시거든요. 사업 내용을 풀어서 설명할 때 '창·제작 과정에서의 접근성 실천에 관한 연구'도 가능하다고 예시로 넣으면 좋겠어요. 2018년에 문영민 선생님도 참여하신 Oset프로젝트의 '대학로 공연장 및 거리 접근성 워크숍'과 같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는 조사 연구가 진짜 필요해요.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함에도 거시적인 실태조사 같은 정책 연구가 세밀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런 연구를 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김신애 종합하면 연구 유형이나 결과물의 형태에 대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예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당사자성 _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하기

최보연 저희가 이번에 우수 연구를 심사할 때 당사자성을 어떤 식으로 반영했는지 주요하게 봤잖아요. 그런데 현재 심의 기준에는 연구팀 내에서 '당사자의 역할과 의사결정 참여 수준'에 대한 배점이 없어요. 심의 기준 항목에 '당사자성'을 평가 기준으로 추가하거나, 신청서에 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기술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연구의 취지, 방향성을 보고 선정할 때 고려하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영민 저는 명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넣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랑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없는 예술가, 연구자, 학계를 잇는 의미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원신청서를 읽어보면 장애인이 그냥 자문이나 형식적으로만 참여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결과보고서가 됐든 지원신청서가 됐든 당사자가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참여하는지, 예를 들면 연구 질문을 설정할 때 참여한다, 연구나 창작 과정에서 참여한다, 아니면 성과 공유 과정에서 어떻게 참여한다, 이렇게 어느 단계에서 장애인의 당사자성이나 경험이 들어가는지가 어딘가에 꼭 있으면 좋겠어요.

김신애 심의 과정에서는 어쨌든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해야 하잖아요. 지금도 사업 내용에 연구에서 장애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서술할 수 있기는 한데요. 어떻게 하면 지원신청서를 통해서 당사자성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양근애 장애예술가 혹은 장애 당사자가 어느 시점에 어떤 역할로 참여하는지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러면 서술형으로 '기획 단계에서 자문을 한다' 혹은 '이 연구는 장애 예술인과 비장애인이 협업하는 공연에 관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장애인의 참여 여부와 역할에 관해 자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영민 저는 지금 신청서의 역할 부분에 장애, 비장애 여부를 체크만 하게 하는 것만 좀 바뀌면 좋겠어요. 서술형으로 조금 설명할 수 있게 양식이 변경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신애 사실 기관으로서는 장애인 단체인지 비장애인 단체인지, 장애인이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치가 필요해서요. 행정상 부득이하게 비율을 산출해야 부분이 있습니다.

최보연 그러면 그걸 파악할 수 있는 표는 되도록 간단하게 만들고 뒤 칸에 주요 참여자가 어떤 방식으로 함께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등록 장애인 여부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3. 전문가의 이야기

포섭되지 않더라도 ‘당사자성’을 좀 더 넓게 보고 어떻게 해당 연구에 반영하는지를 기술하게 하는 방식이면 어떨까 싶어요.

양근애 길이와 상관없이 서술형으로 쓰게 하면 계획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참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참여 여부만 체크하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한 사람 있으니까 됐다, 요구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심의할 때도 당사자성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세한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사자성의 반영과 장애인의 구체적인 역할’ 이런 식으로 훨씬 친절하게 질문하는 거죠.

김신애 말씀해 주신 ‘장애인의 참여 수치만 보지 말고 장애인 참여자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게 한다’가 이번 연구 지원사업 개선점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물 _ 다양한 형태로 내고 공유하기

김신애 결과물은 연구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제안하면 좋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연구 결과물을 자유롭게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문의가 많이 와서 ‘30페이지 이내, 사업 종료 1개월 내 제출’이라고 추가했거든요.

양근애 하나의 사례만 주면 그대로 해야 할 것 같으니, 다양한 연구 결과물의 형태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 어떨까요. 지금도 결과보고서를 보면 30페이지에 맞춰 쓴 것도 아니고, 형식도 학술 보고서 형태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김신애 이번 기회에 우수 사례 외에도 기존 연구 결과보고서를 ‘이음온라인’에 업로드하고 결과자료집과 2027년 공모 안내서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연구 지원에 참여하실 분들은 사전에 사례를 볼 수 있게 되겠죠. 예술지원부에서 고민했던 ‘연구 결과물의 확산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보연 연구자에게 결과물을 요청하는 목적이 ‘누군가와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전형적이고 형식적인 칸 채우기의 보고서 형태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록물은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안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양근애 추가로 저는 해당 사업이 기존의 장애예술 연구와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학술논문으로 치면 ‘선행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장애예술에 관한 연구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왔는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신청한 사업이 기존에 나온 논의와 구분되는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연구의 독창성을 가늠할 수 있고 나아가 연구 지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위해서라도 그동안 ‘장애예술 연구 지원’에서 나온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사전에 공유되어야 하고요. ‘기존 연구 검토’ 혹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부분을 심의 기준에 넣으면 어떨까요.

#심의 _ 기준과 문구 다시 살펴보기

최보연 심의 관련해서 덧붙이면 지금 연구 지원은 ‘사업 계획의 충실성·타당성’ 항목의 배점(50%)이 높은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당사자성’도 있고 ‘선행 연구 검토’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충실하게 계획에 녹였는지 본다는 걸 명시할 필요는 있지만, 이 문구가 ‘반드시 계획대로 꼭 해야만 한다’로 느껴지지 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연구도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나름의 목적이 분명하면

수용한다는 시그널이 필요해요. 또, 사업 목적도 현재의 문구는 장애예술계 내부만 지향하는 것처럼 보여서, '장애예술계 안팎의 이슈'를 함께 공론화한다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애예술의 이슈가 여기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계 전반의 기존 인식이나 장르별 문법의 변화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둔다는 차원에서요.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이나 내용에 대한 문구와 설명이 달라지면 지원하는 분들의 장문원에 대한 인식이나 이 연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문영민 저는 연속 지원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후속 연구가 필요한 연구인지, 이전 연구에 비해 나아진 연구를 할 것인지를 심사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신청서가 전체적으로 뛰어나다고 해서 다시 선정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보연 다음 해에 연속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했던 연구 결과와 어느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는지를 상세히 기술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 _ 모이고 나누는 자리 마련하기

김신애 이번처럼 우수 연구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건 '연구 지원'을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서 분리해서 진행한지 3년 만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올해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가 내년 초에 같이 모여 연구 결과를 나누는 네트워킹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셨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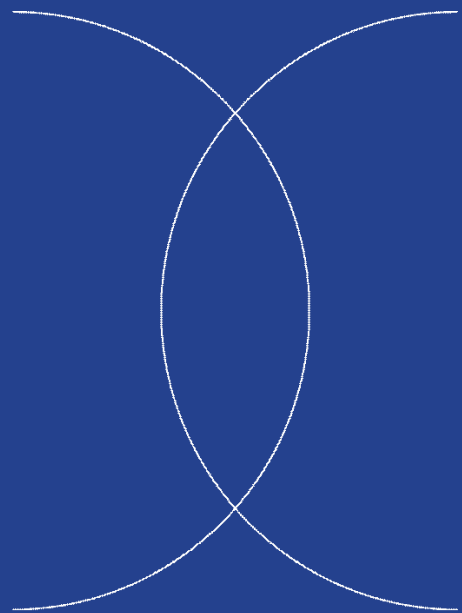
최보연 저는 시상과 네트워킹 자리 둘 다 필요할 것 같아요. 3년에 한 번 시상만 하면 네트워킹할 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잖아요. 결과물을 취합해서 플랫폼에 올리는 시점에 모여서 연구자끼리 얘기하고 다른 팀은 어떤 연구를 했는지 들을 수 있는 공유회는 매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행사는 지원사업에 신청했거나 연구 지원에 관심 있는 사람까지 다 와서 볼 수 있게끔 하고요.

문영민 지금은 연구자가 매년 각자 결과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결과보고회 참석자가 몇 명인지 기입하는 칸도 없으면 좋겠어요. 결과보고회 방식도 열어 두거나 모여서 할 수 있으면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양근애 저도 2026년에 선정된 10개 팀이 다 같이 모일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몇 년은 지나야 어느 정도 연구가 축적되어서 우수 연구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구 결과가 쌓이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어떤 이슈나 키워드가 주목받았는지 경향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수 연구를 시상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연구자에게도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김신애 이번 우수 연구 공유회에는 3년 동안 연구 지원에 참여했던 분들을 초대하고 내년도 공모와 장애예술 연구에 관심 있는 분들까지 다 참여하실 수 있게 열어둘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장애예술 연구 지원사업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7년 공모 지원사업을 준비하는데 잘 활용하겠습니다.

4. 부록



장애예술 연구 지원 운영 결과 2023-2025

2023

연구명	연구자(단체)	연구유형	장애유형	예술분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발달장애학생 대상 개정 음악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발간	(사)몸짓과소리	교육 프로그램	발달	음악
배리어프리 콘텐츠 비평 및 공유 접근성 연구	꿈꾸는베프	접근성	시각	예술일반
Play ground II : 특별한 어른들의 놀이터	다도스튜디오	교육 프로그램	발달	무용
국내외 통합예술단체 협업 사례 분석과 장애음악인의 예술 활동 지속성 및 상관성에 대한 연구	사회참여적음악가 네트워크	사례 기반	모든 장애	음악
장애의 시선에서 벗어난 발달장애인 배우 참여형 연극 형태 연구	이현재 앤 컴퍼니	창작 기법	발달	연극
배리어 프리 전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조예진	접근성	시각	시각예술
장애유형별 당사자의 춤 이야기를 담은 『맞춤형 장애무용학 개론』 연구	한국장애인무용협회	사례 기반	모든 장애	무용
휠체어태평무작품연구	황규선무용단	작품 개발	지체	무용

2024

연구명	연구자(단체)	연구유형	장애유형	예술분야
기술을 활용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악 교육 연구	Dominant Agency	교육 프로그램	청각	음악
쓰는 무용, 말하는 무용, 듣는 무용	공영선	창작 기법	시각	무용
접근성, 그 너머의 '접근'으로 : 장르별 접근성 리서치를 중심으로 한 공연예술 적용 방법 개발	구현	접근성	모든 장애	연극
정신장애인이 체험한 '공간'을 연극화하는 창작 방법론 탐구 : 당사자 주도적 창작 워크숍 개발	미친존재감 프로젝트	창작 기법	정신	연극
소리없는 소리 키트	여성을위한오픈기술랩	교육 프로그램	청각	음악
신경다양성 담론형성 및 신경다양성 관련 예술 비평 언어 형성을 위한 연구개발, 리서치	이윤조	개념 · 담론	신경다양성	예술일반
발달장애인 배우의 지속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한 현장 동향 분석 및 제언	이현재 앤 컴퍼니	사례 기반	발달	연극
장애 무용수 움직임표현 확장을 위한 접촉즉흥프로그램 <너와 나의 몸뭉스> 개발 및 실행 연구	전미라	교육 프로그램	발달	무용
진로직업교육으로서의 시각장애 음악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최유림	사례 기반	시각	음악
천천히 새롭게	프로젝트Lowkey	사례 기반	모든 장애	예술일반

2025

연구명	연구자(단체)	연구유형	장애유형	예술분야
발달장애인 예술가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만들기의 가능성 탐구 - 일본 에이블아트운동(able art movement)사례를 중심으로 -	고재필	사례 기반	발달	예술일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움직임 연구개발_오월장미	꽃 필 무렵	교육 프로그램	시각	예술일반
AI 아트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맞춤형 예술 창작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노선영	접근성	모든 장애	예술일반
발달장애인의 시각예술:이해당사자들이 바라보는 예술의 본질과 예술노동의 가능성	달팽이 네트워크	비평	발달	예술일반
장애예술인의 '좋은' 삶을 위하여? 조력자와 매개자의 역할에 대한 연구	사회참여적음악가 네트워크	개념 · 담론	모든 장애	음악
시각 이미지의 촉각적 변형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소수빈	접근성	시각	시각예술
물질성과 시간성 기반으로 한 장애예술 비평과 ZINE을 통한 창작자 매개 연구	안녕, 예술가	비평	모든 장애	예술일반
시각장애인을 위한 건축 현장 체험 및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염상훈	교육 프로그램	시각	건축
감각적 민주주의(Sensory Democracy) 연구1: 신경다양성의 소마틱 기반 담론 형성 및 관련 예술 경제/시장 언어와 비평 언어 형성을 위한 연구개발	이윤조	개념 · 담론	신경다양성	예술일반
헌터하트비트메소드의 한국화 작업을 위한 연구	이지에	교육 프로그램	발달·신경다양성	연극

- 연구명(신청 기준)을 누르면 결과보고서, 영상, 전시 소개 등의 결과물로 연결됩니다.
- 결과보고서는 이름 온라인>미디어>문서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장애예술 연구 지원사업 성과분석 결과자료집

결과 너머, 연구자의 이야기

발행인 방귀희
발행일 2025년 10월 15일
발행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총괄 예술지원부
제작 비사이드컬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www.kdac.or.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2
이메일 ieum@kdac.or.kr
전화번호 02-760-9700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게 있으며, 책에 수록된 내용은 무단으로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조건(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에
따라, 저작자와 출처를 표기하면 자유
이용을 허락합니다. 단, 상업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